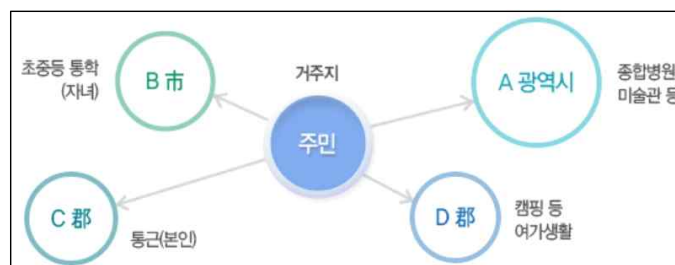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의 지역구조 분석

1. 개요

1)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본개념

- 전국 어디서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의 설정
- 주민 및 지자체의 자율적인 주도아래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서비스 이용 공간을 설정하여, 고차서비스·복합서비스·기초생활서비스의 기능을 분담(지역발전위원회, 2013)



[그림 1] 생활권의 개념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

2)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 지역생활권의 유형에는 농어촌생활권(농어촌 시·군),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 및 인근 농어촌),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권 및 중소 연담도시권)으로 구분함
 - 농어촌생활권은 상호 연계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으로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을 중요시 하는 생활권
 - 도농연계생활권은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주변 연계성이 높은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은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와 특화된 중소도시가 연담되어 중심을 이루는 대도시 생활권(지역발전위원회, 2013)

3)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 기준

- 생활권 설정 시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관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자체 협력의지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
- 구성은 정량적 및 정성적인 근거자료로 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생활권으로 구성(지역발전위원회, 2013)

<표 1> 지자체간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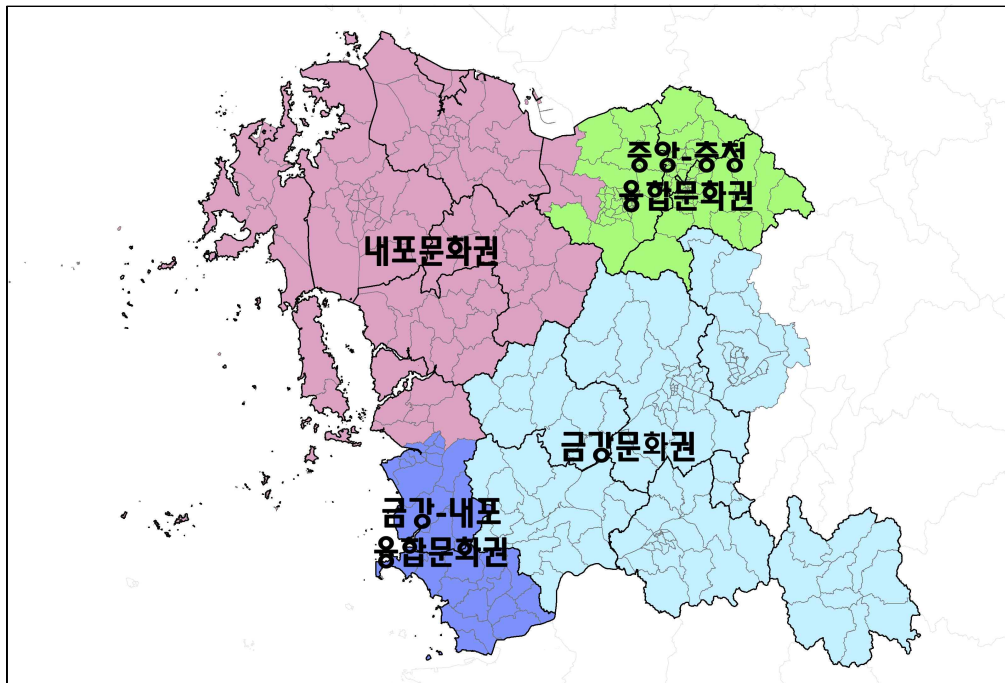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연계성 기준 지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통근통행지표 -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권 - 산업·경제 연계지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 연계협력 실적 등 사회적 통합성 -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

4)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분석을 수행
-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문화권의 공간적 범역설정을 통하여 살펴봄
- 2010년 대전·충청권의 통근·통행 O-D표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동일권역으로 묶이는 시·군을 추출하여 비교분석
-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 분석은 충청남도 동·읍·면별 총 1,800부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을 조사·분석함
- 마지막으로 시·군 간 산업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충남 시·군에 대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화의 흐름을 분석함

2. 역사·문화적 동질성

- 문화권의 공간적 범역설정은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이나 동질적인 문화행태의 지리적 분포양상을 통해 가능함
- 문화권은 인문지리학 및 인류학적 개념에서 본래 문화요소의 지리적 분포를 밝혀 공간을 구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어, 동질적인 문화적 특성이 발견되는 공간적인 권역을 말함¹⁾
- 충청남도의 문화권 구분²⁾
 -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남지역의 금강문화권과 서북지역의 내포문화권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음
 - 공주-부여-청양생활권은 금강문화권의 중심도시들이고, 특히 백제역사의 고도(古都)로서 공주시와 부여군이 백제문화유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역사·예술 등이 발달함



[그림 2] 충남의 문화권

- 1) 지역문화의 공통분모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접근하여 적정화한 하나의 공간단위이고, 권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엄격하게 선적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분, 중첩도 인정해야 된다.
- 2)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 금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참조

- 이와 같이 지역별로 다양성을 보이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광역적 연계·교류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3. 통근연계구조 및 통근권³⁾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 지역 간 연계성과 중심성은 지역 간의 관계, 지역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 따라서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통근통행 O-D표를 이용하여 동일 권역으로 묶이는 시·군·구를 계층적으로 선정함
 - 일반적으로 O-D행렬에서 $x_{ij} \neq x_{ji}$ 이기 때문에 도착과 출발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i 지역과 j 지역 간의 통근통행량은 $\frac{(x_{ij} + x_{ji})}{2}$ 로 계산
 - 지역의 인구가 크면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크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야간인구 대비 통근통행량을 계산

$$\frac{(x_{ij} + x_{ji})}{(P_i^N + P_j^N)}$$

-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을 사용하고, 통근통행 O-D행렬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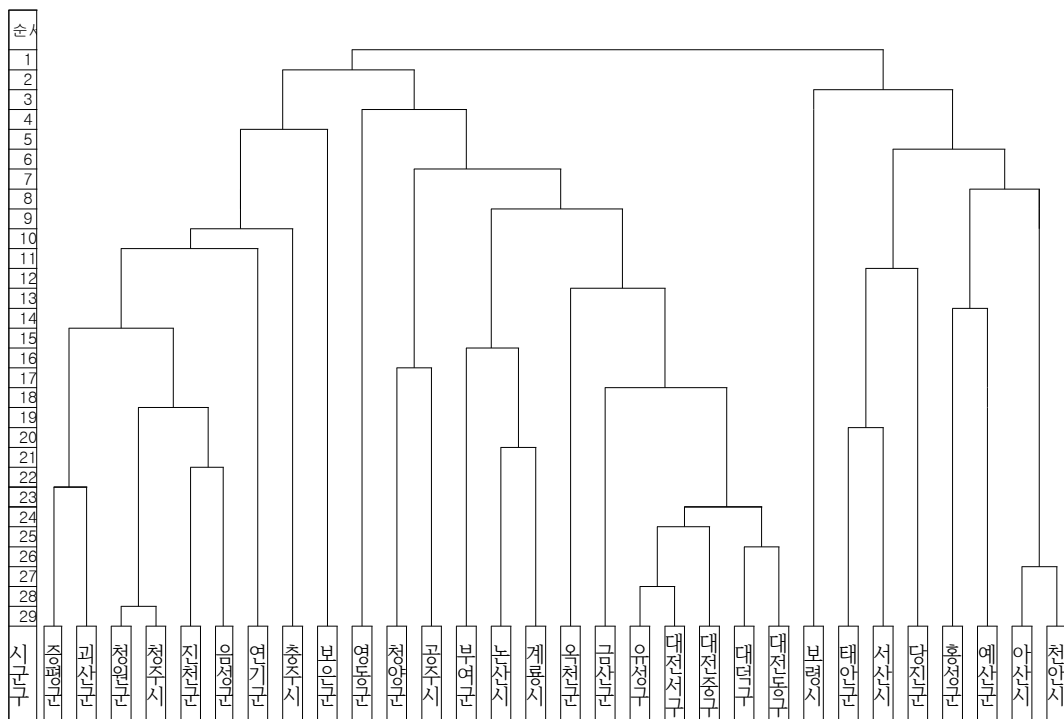
<표 2> 통근통행 O-D행렬

O \ D		지 역						출발 합계	재택자	야간 인구
		D_1	D_2	...	D_j	...	D_n	X^O	H	P^N
지 역	O_1	x_{11}	x_{12}	...	x_{1j}	...	x_{1n}	X_1^O	h_1	P_1^N
	O_2	x_{21}	x_{22}	...	x_{2j}	...	x_{2n}	X_2^O	h_2	P_2^N
	\vdots	\vdots	\vdots	\ddots	\vdots	\ddots	\vdots	\vdots	\vdots	\vdots
	O_i	x_{i1}	x_{i2}	\ddots	x_{ij}	\ddots	x_{in}	X_i^O	h_i	P_i^N
	\vdots	\vdots	\vdots	\ddots	\vdots	\ddots	\vdots	\vdots	\vdots	\vdots
	O_n	x_{n1}	x_{n2}	...	x_{nj}	...	x_{nn}	X_n^O	h_n	P_n^N
도착합계	X^D	X_1^D	X_2^D	...	X_j^D	...	X_n^D			
재택자	H	h_1	h_2	...	h_j	...	h_n			
주간인구	P^D	P_1^D	P_2^D	...	P_j^D	...	P_n^D			

3) (이종상, 2013. 5. 27, “통근통행을 통해서 본 충남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내포광역도시권”, 「충남 서북부 지역의 공간구조와 광역도시권 구상」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제11차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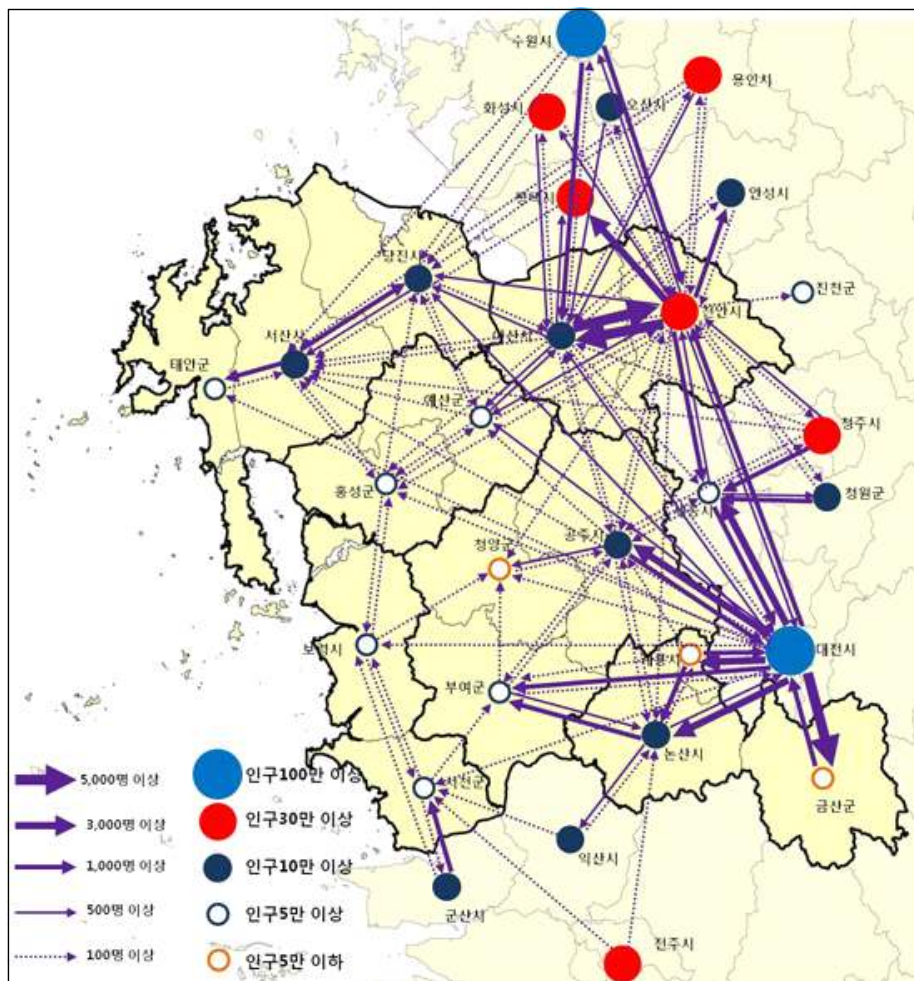
2) 대전충청지역의 통근·통행권

- 대전·충청지역의 통근권은 대전·충남중부권, 충남 서북부권, 충북권으로 크게 3권역으로 구분됨
 - 대전충남중부권은 대전시를 중심으로 영동, 청양, 공주, 부여, 논산, 계룡, 옥천, 금산 등과 함께 대전·충남부권에 포함됨
 - 내포신도시가 입지한 홍성군과 예산군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과 함께 충남 서북부권에 포함됨
 - 통근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금산 등의 통근권, 계룡·논산·부여 등의 통근권, 서산·태안 등의 통근권, 공주·청양 등의 통근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전·충남지역의 통근권을 세분화 해보면, 천안·아산권, 홍성·예산권, 서산·당진·태안권, 대전·금산권, 논산·계룡·부여권, 공주·청양권으로 구분되고, 보령시는 어떤 권역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대전·충청의 통근통행권(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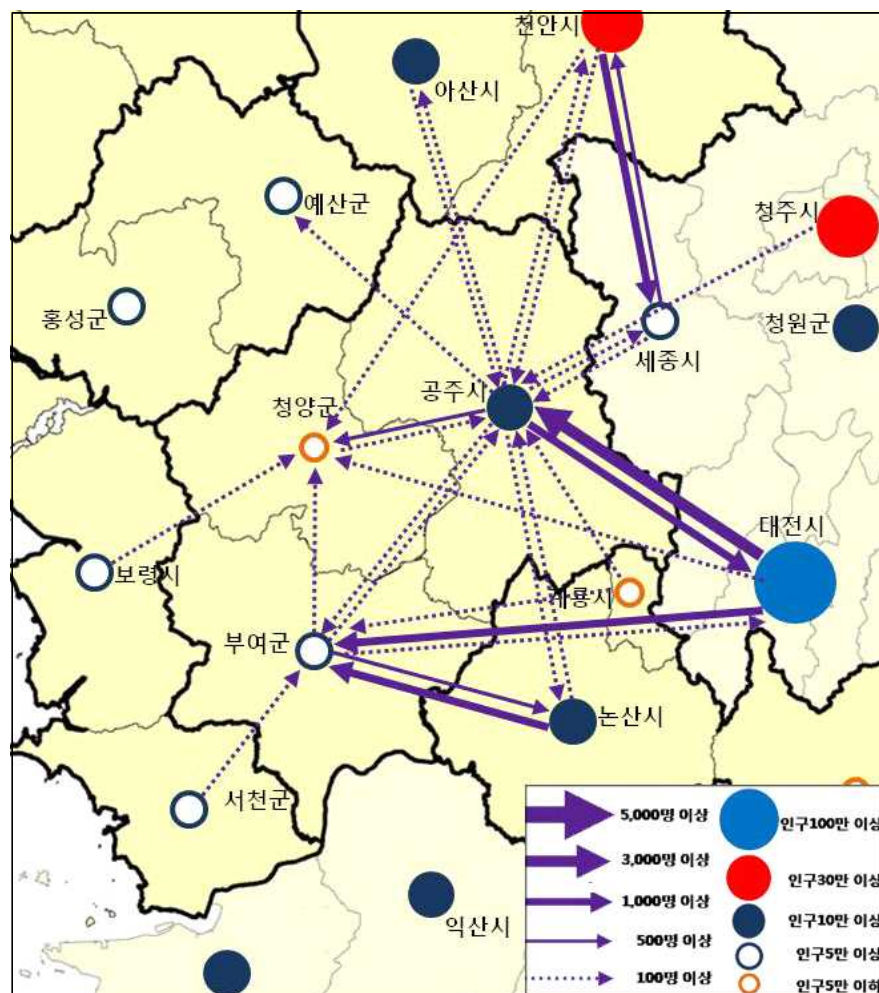
- 충청남도 및 주변 시·도 간의 시·군 통근통행량 분포에 있어서 대전, 천안, 청주가 가장 큰 결절로 나타남
- 충청남도 내부적으로는 동북부지역의 시·군간 통근통행 연계가 강한데 반하여, 서남부지역은 시·군간 통근통행 연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보면, 천안·아산은 연계가 가장 강한 한편, 경기 남부의 시·군과의 연계도 강함. 다음으로 대전과 금산, 공주, 논산, 계룡 간의 연계가 강하며, 서산·당진·태안 및 논산·부여 간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서천은 군산과의 연계가 강하고, 보령·홍성·예산·청양은 주변지역과의 통근밀도 자체가 낮음



[그림 3] 충남 및 주변 시·도의 시·군간 통근통행량 분포도

3)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의 통근연계구조

-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공주를 중심으로 부여와 청양의 통근연계 구조를 형성함
- 공주시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통근 연계구조가 높고, 공주시로부터 청양으로의 통근통행량이 많음
- 인구규모가 작은 청양시의 경우 공주시로의 유출 통근통행량과 유입 통근통행량이 각각 119명과 63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통근연계구조

- 부여군은 서측에 호서정맥이 흐르고 있어 충남 서부지역과의 통근 연계구조가 매우 약하고, 북동측의 공주·청양과의 통근 연계구조도 약한 편임
-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논산시로부터의 역통근은 1,000명 이상/일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공주-부여-청양생활권에서 공주시와 부여군 각각은 대전광역시와의 통근 연계가 가장 강하며, 부여군의 경우 논산시와 통근 연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4.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

1)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읍·면·동별로 각 10부씩 총 1,800부의 설문조사를 시행함(2012년 11월 설문조사 기준)
- 설문은 생활필수품, 생활편의시설, 농업물품, 가전제품, 진료, 종합병원, 경제활동, 친지방문 및 친지모임, 각종 사회모임, 문화·여가·체육활동, 민원행정서비스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하여 구매 및 서비스 이용지역을 조사하였으며, 특징이 보이는 9개 품목에 대해 설명
- 이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구매권의 O-D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의 O-D그림을 작성

2) 분석결과⁴⁾⁵⁾⁶⁾

-
- 4) 제시된 그림의 범례 구간은 이용비율을 지역 내 인구수로 환산한 후, 표준편차의 구간에 의해 구분 함
 5) 설문항목 중 “친지방문 및 친지모임”은 분산적인 랜덤패턴, 민원행정서비스는 자გი지역으로 특정한 패턴이 없어 설명에서 제외 함
 6) 분석 결과 중 충남전체 평균의 합이 100%가 안 되는 품목들은 응답자와 관련사항이 없어 불응답 함

(1) 생활필수품

- 생활필수품은 찬거리, 일상식료품, 치약 등 일상 소모품인 저차서비스로서 충청남도 평균 95% 내외가 자기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함
- 주변지역인 대도시로 이용하는 비율은 공주시가 충청남도 평균 2%에 비해 8%로 높아 대전광역시로의 상품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여군의 경우 92%가 자가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였고, 그중 7%가 강경읍, 2%가 보령시 동부지역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됨
- 청양군의 경우 98%가 생활필수품을 자가지역에서 구매하였으며, 자가지역 시·군청 소재지에서의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생활필수품)

Q01	해당시·군			주변지역		
생활필수품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73%	2%	21%	1%	2%	2%
공주시	68%	3%	18%	-	3%	8%
부여군	61%	-	31%	7%	2%	-
청양군	89%	-	9%	-	2%	-

Q01_생활필수품
이용인구 규모

- 371 ~ 10000
- 10000 ~ 30000
- 30000 ~ 100000
- 100000 ~ 441491

157 ~ 1000
1001 ~ 3000
3001 ~ 5000
5001 ~ 7000
7001 ~ 19527

Q01-1_생활필수품(이용인구 규모)

Q01_생활필수품
시·군 내 이용률(%)

- 10 ~ 35
- 35 ~ 60
- 60 ~ 85
- 85 ~ 100
- 10 ~ 35
- 35 ~ 60
- 60 ~ 85
- 85 ~ 100

10 ~ 35
35 ~ 60
60 ~ 85
85 ~ 100

Q01-2_생활필수품(시·군 내 이용률)

예) 경제활동의 경우 가정주부나 무직자는 경제활동 항목에서 불응답

(2) 생활편의시설

- 생활편의시설은 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중차서비스이며, 충남평균 자기지역 읍·면이 47%, 자기지역 시·군청 소재지가 40%이고, 주변지역은 8% 내외임
- 공주시의 경우 주변 대도시로의 비율이 15%로서 충청남도 평균 4%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대전광역시로의 구매비율이 높음
- 부여시의 경우 자기지역 시·군청소재지로서 64%의 비율로 나타나 충청남도 평균 40%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주변지역으로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논산시 강경읍으로 8%의 이용비율을 보임
- 청양군의 경우 자기지역 읍·면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반해 자기지역 시·군청 소재지의 경우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생활편의시설)

Q02	해당시·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47%	5%	40%	1%	3%	4%
공주시	43%	4%	31%	-	7%	15%
부여군	27%	1%	64%	8%	1%	-
청양군	87%	-	12%	-	1%	-

Q02_생활편의시설
이용인구 규모

Q02_생활편의시설
시·군 내 이용률(%)

Q02-1_생활편의시설(이용인구 규모)	Q02-2_생활편의시설(시·군 내 이용률)
-----------------------	-------------------------

(3) 농업물품

- 농업물품은 농자재, 농약, 비료, 종묘 등 농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물품으로서 저차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남평균 85%가 자გი지역에서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გი지역 내 입지한 점포들이나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서 주로 구매가 이루어짐
- 일부지역에서 자გი지역의 시·군청 소재지로도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공주시는 자გი지역 읍·면에서의 구매가 충청남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주 동부에서의 구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부여군은 전체 응답자 63% 중 57%가 자გი지역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이중 5%가 논산시 강경읍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조사 됨
- 청양군은 전체 응답자 54% 중 53%가 자გი지역에서 구매를 함

<표 5>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농업물품)

Q03	해당시·군			주변지역		
농업물품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2%	2%	21%	0%	1%	2%
공주시	86%	3%	10%	-	-	-
부여군	18%	-	39%	5%	1%	-
청양군	45%	-	8%	-	1%	-

Q03_농업물품
이용인구 규모

Q03_농업물품
시군 내 이용률(%)

Q03-1. 농업물품(이용인구 규모)

Q03-2. 농업물품(시·군 내 이용률)

(4) 가전제품

-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중차서비스로서 자기 읍·면보다는 자기지역 내 시·군청소재지로 집중하는 경향이 절대적임
- 충청남도 평균의 경우 자기지역에서의 구매 비율이 82%에 달하며, 이중 69%가 자기지역 시·군청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주시의 경우 31%가 주변지역에서 구매하였으며,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23%, 천안시에서 9%가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대도시로의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대전광역시의 비율이 높음
- 부여군은 95%가 자기지역에서 구매를 하였으며, 이중 88%가 부여읍에서 집중하고 있음
- 청양군의 경우 자기지역 구매비율은 41%로 상당히 낮으며, 주변지역의 시·군청소재지로 5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이중 공주 동부가 23%, 홍성 홍성읍이 16%, 보령 동부가 11%, 예산 예산읍이 7%의 비율을 나타냄

<표 6>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가전제품)

Q04	해당시·군			주변지역		
가전제품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12%	1%	69%	0%	9%	9%
공주시	8%	-	61%	-	2%	29%
부여군	7%	-	88%	1%	5%	-
청양군	3%	-	38%	-	57%	2%

Q04_가전제품
이용인구 규모

- 179 ~ 50000
- 50000 ~ 110000
- 110000 ~ 470000
- 470000 ~ 397270
- 142 ~ 1000
- 1001 ~ 6000
- 6001 ~ 11000
- 11001 ~ 16000
- 16001 ~ 44141

Q04-1_가전제품(이용인구 규모)

Q04_가전제품
시·군 내 이용률(%)

- 10 ~ 25
- 25 ~ 60
- 60 ~ 98
- 98 ~ 100
- 10 ~ 37
- 38 ~ 73
- 74 ~ 100

Q04-2_가전제품(시·군 내 이용률)

(5) 진료

- 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병·의원 등 1차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저차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충청남도 평균의 경우 96%가 자გი지역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자გი지역 읍·면이나 자გი지역의 시·군청 소재지로 집중함
- 공주시는 58%가 공주 동부지역에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대전광역시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8%로 나타남
- 부여군의 경우 부여읍으로의 이용 비율이 78%로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청양군은 자გი지역 읍·면에서의 이용비율이 높고, 청양읍으로의 이용비율이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 낮음

<표 7>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진료)

Q05	해당시·군			주변지역		
진료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0%	2%	34%	0%	2%	3%
공주시	33%	-	58%	-	1%	8%
부여군	14%	-	78%	-	8%	1%
청양군	84%	-	14%	-	2%	-

Q05_진료
이용인구규모

258 - 30000
30000 - 60000
60000 - 397270
18001 - 40000
40001 - 70000
70001 - 397270

Q05_진료
시·군 내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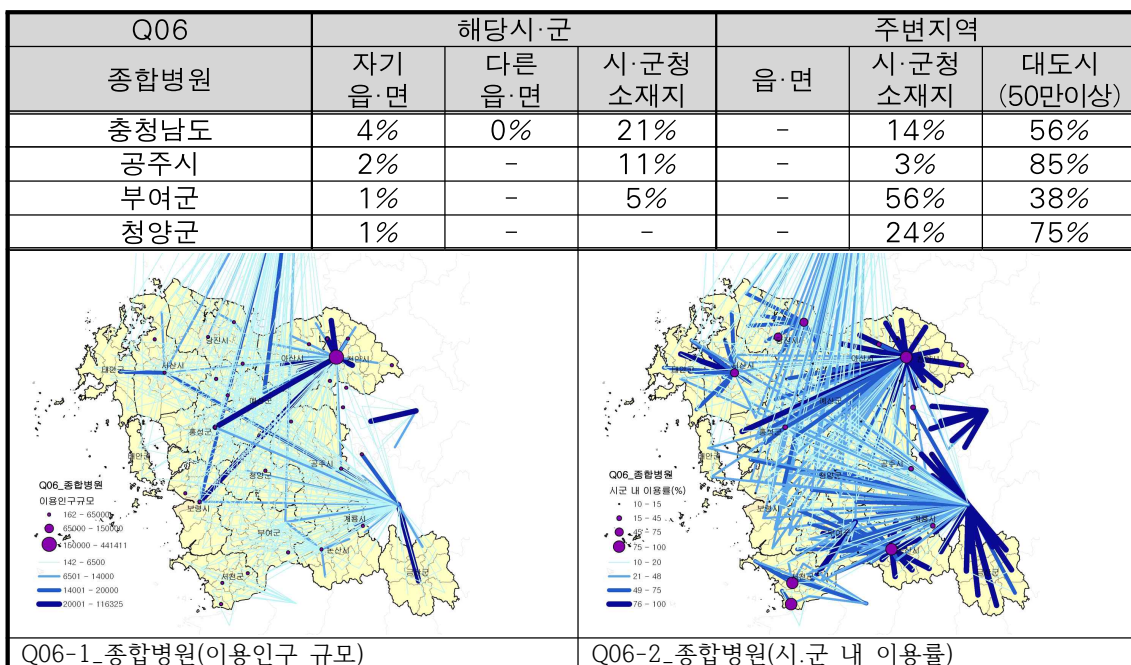
10 - 20
20 - 50
50 - 85
85 - 100
10 - 37
38 - 72
73 - 100

Q05-1_진료(이용인구 규모)
Q05-2_진료(시·군 내 이용률)

(6) 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3차 진료서비스로서 고차서비스로 분류함
- 충남평균으로 자기지역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5%로 적었고, 주변지역으로의 이용비율은 70%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변 대도시로의 이용비율이 56%로 높음
- 대도시인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종합병원이 입지되어 있는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공주시의 경우 85%가 주변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고, 이중 대전광역시로 50%, 천안시로 20%, 서울특별시로 12% 등의 비율을 보임
- 부여군의 경우 94%가 주변지역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56%가 논산 동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로 28%, 서울특별시로 9%의 비율로 나타남
- 청양군은 응답자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로 44%, 서울특별시로 17%, 공주시로 14%, 천안시로 12%, 홍성군으로 10%의 비율을 보임

<표 8>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종합병원)



(7) 경제활동

- 경제활동은 직장, 일터 등을 말하며, 고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기지역 시·군에서 86% 내외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주변지역으로는 5%로 내외로 적음
- 공주시는 자기지역에서 88%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12%가 주변지역이며, 이중 7%가 대전광역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여군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83%, 주변지역에서 2%의 비율을 보임
- 청양군은 자기지역에서 경제활동의 비율이 93%로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9>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경제활동)

Q07	해당시·군			주변지역		
경제활동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9%	2%	15%	1%	2%	2%
공주시	70%	-	18%	-	5%	7%
부여군	69%	-	14%	1%	-	1%
청양군	85%	-	8%	-	3%	-

Q07_경제활동
이용인구규모

Q07_경제활동
시·군 내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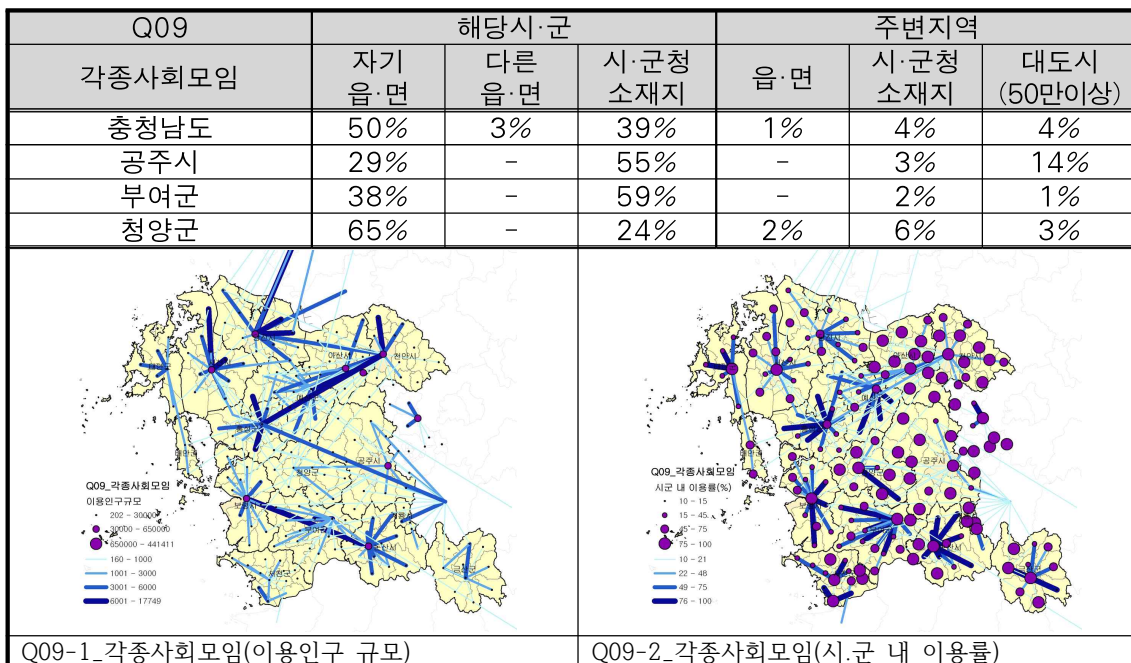
Q07-1_경제활동(이용인구 규모)

Q07-2_경제활동(시·군 내 이용률)

(8) 각종사회모임

- 각종 사회모임은 동창회, 계, 위원회, 각종 단체의 회의 등을 말하며, 중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기지역 읍·면 비율이 50%, 자기지역 시·군청 비율이 39%로 나타남
- 일부 시·군의 경우 자기지역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나 주변 시·군청 소재지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임
- 공주시는 84%가 자기지역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고있고, 이중 55%가 공주 동부지역, 12%가 주변대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고있으며,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여군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97%의 비율을 보이며, 이중 59%가 부여읍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은 것으로 분석됨
- 청양군원 89%가 자기지역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고있으며, 24%가 청양읍에서 이용비율을 나타내며, 4%가 공주 동부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음

<표 10>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각종사회모임)



(9) 문화·여가·체육활동

- 문화·여가·체육활동은 문화행사, 취미강좌, 헬스 등을 말하며, 고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გი지역 읍·면의 경우 59%, 자გი지역 시·군청소재지의 경우 31%, 주변지역이 6%로 나타남
- 각종 사회모임과 마찬가지로 일부도시에서 자기 읍·면 이용과 시·군청 소재지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임
- 공주시의 경우 88%의 비율로 자გი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8%의 비율로 주변지역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문화·여가·체육활동 서비스를 이용함
- 부여군의 경우 97%의 높은 비율로 자გი지역에서 문화·여가·체육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양군 역시 98%의 높은 비율로 자გი지역에서 문화·여가·체육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표 11>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문화·여가·체육활동)

Q10	해당시·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59%	3%	31%	0%	3%	3%
공주시	68%	3%	17%	-	3%	9%
부여군	63%	-	34%	-	2%	1%
청양군	83%	-	15%	-	1%	1%

Q10_문화·여가·체육활동
이용인구규모

142 ~ 30,000
30,000 ~ 65,000
65,000 ~ 141,411
142 ~ 1,000
1,001 ~ 3,000
3,001 ~ 6,000
6,001 ~ 17,369

Q10_문화·여가·체육활동
시·군 내 이용률(%)

10 ~ 20
20 ~ 50
50 ~ 80
80 ~ 100
10 ~ 23
24 ~ 48
49 ~ 73
74 ~ 99
100

Q10-1_문화·여가·체육활동(이용인구 규모)
Q10-2_문화·여가·체육활동(시·군 내 이용률)

5. 시·군간 산업연계구조⁷⁾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 2005년 기준 16개 시·도단위 지역산업연관표⁸⁾에 대해서 생산물 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⁹⁾을 이용하여 시·군 단위로 세분화함
- 시범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시·군단위에서 지역 간, 산업 간 재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충남 시·군에 대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화의 흐름을 제시함
- 분석지역은 충남 16개 지역(과거 연기군 포함)을 대상으로 수행함

2) 분석결과

(1) 충청남도 중간재화 분석결과

- 16개 시·군 모두 자기 시·군의 중간재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산업의 경우 충남 북부권 지역의 시·군이 서로 상호관계에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
- 또한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세종 등은 천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아울러 보령,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등은 서산시로부터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정밀기계 산업, 전기전자 산업, 수송산업은 충남의 대부분 시군이 천안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천안시와 아산시가 중간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역량을 보임
- 1차 금속 산업은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7)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전략과제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중 “내포지역의 산업입지와 시·군간 산업 연계구조”를 인용함

8) 지역산업연관표는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하며, 세분화된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의 경제상황과 비교, 검토될 필요가 있다.

9) 생산물혼합기법은 지역의 세부 산업구성을 이용하여 상위 산업의 기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이 세분화 되어도 산업간 기술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전달 비중이 높으며, 당진의 경우 현대제철소의 영향이 큼

- 비금속광물 산업은 충남 동남부 지역의 경우 천안시가 타 지역으로의 중간재화 전달 비중이 높은 반면, 서북부 지역은 보령시와 서산시가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조달 비율이 상당히 높음
- 농림수산품은 서산시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들에게 조달비율이 높고, 논산시가 공주시·계룡시·금산군으로 중간재 조달 비율이 높으며, 부여군 역시 서천군과 청양군으로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분산적으로 조달비율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분석 결과

- 대부분 시·군의 여러 산업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로의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상위권에 위치함
- 공주-부여-청양 생활권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영향이 큰 편임
-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할 경우 공주시는 세종시와 작은 비율에서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보이며, 부여군으로 농림수산품의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나타남
- 부여군의 경우 서천군과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높음
- 청양군의 경우 전산업에서 부여군으로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높으며, 특히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이 높게 나타남

<표 12> 충남 16개 시군의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 비율 상위 1~3위

지역	지역별 순위(%)							
	전산업	정밀기계	1차 금속	전기전자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공주	천안(8.2%)	천안(17.0%)	천안(18.5%)	천안(23.8%)	천안(19.4%)	천안(8.6%)	논산(13.2%)	논산(12.6%)
	논산(5.1%)	아산(8.7%)	당진(11.8%)	아산(12.3%)	아산(13.8%)	아산(7.5%)	천안(12.5%)	부여(8.4%)
	아산(4.2%)	세종(3.9%)	아산(8.9%)	세종(4.9%)	세종(4.3%)	세종(6.4%)	부여(6.7%)	천안(8.0%)
부여	서천(5.5%)	천안(13.1%)	보령(9.8%)	천안(17.4%)	천안(13.2%)	보령(6.8%)	서천(7.2%)	서천(13.2%)
	천안(4.5%)	아산(7.4%)	천안(8.2%)	아산(10.1%)	아산(9.8%)	서천(6.3%)	논산(6.1%)	논산(8.4%)
	보령(4.1%)	논산(3.4%)	서천(7.4%)	논산(4.2%)	보령(5.2%)	논산(4.8%)	천안(6.0%)	보령(8.1%)
청양	부여((7.4%))	천안(15.9%)		천안(23.4%)	천안(15.1%)	보령(8.7%)	부여(11.2%)	부여(14.3%)
	보령(7.3%)	아산(11.2%)	-	아산(16.8%)	아산(14.6%)	홍성(7.3%)	보령(10.2%)	보령(11.0%)
	천안(6.5%)	당진(3.9%)		논산(3.8%)	서산(7.2%)	서산(7.1%)	논산(7.0%)	홍성(7.2%)

주 : 금액이 아닌 조달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중간재화의 조달 도착기준으로 각 도착 시군별 비교는 무의미 하며, 타 지역에서 개별시군으로의 도착 조달 비중에 대한 개별 셀에서만 의미가 있음

6. 종합분석 및 지역행복생활권 대안설정

1) 종합분석

- 현재의 생활권은 지역별·항목별(통근통행, 상품·서비스이용, 산업연계 등) 편차가 존재
- 충남지역은 시·군 간을 넘는 광역적 생활권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현재의 6개 지역행복생활권은 앞으로 함께 완성해 가야하는 협력적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과소화 되어 지역 간 연계도 활발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으로서 지역경제, 일자리, 광역시설 공동이용 등의 방식에 의해 개발의 효과 또는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별 발전잠재력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적인 특성,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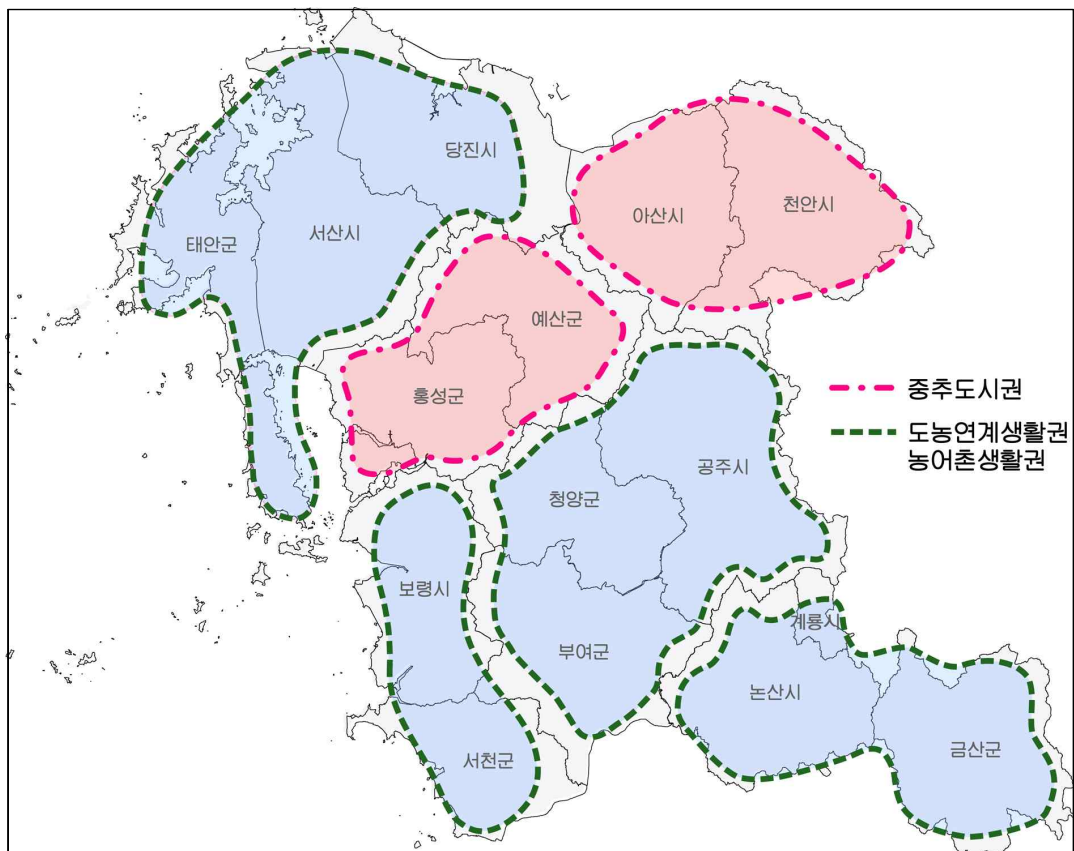
-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모두 금강문화권으로서 공주시를 중심으로 부여, 청양, 대전, 논산, 아산, 세종 등의 주변 시·군과 통근연계가 나타남
- 상품구매 및 서비스 시설 이용권의 경우, 공주시는 대전시, 부여군은 논산시와 약한 연관성을 갖으나, 청양군이 공주시와 연계성이 비교적 높고, 공주시와 청양군 모두 부여군과 일부 품목에서 산업의 중간재화 조달비율에 있어 연관성을 보임

- 또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백제역사의 주축 도시들로서 역사적 연계·협력에 있어 가능성이 매우 큼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적정함

<표 5> 생활권별 시군별 분석결과 비교

생활권	시군명	문화권	주요 통근지	상품구매 및 서비스 시설 이용권		중간재화 조달비율 상위 지역	기타
				서비스 종류 및 연관지역	연계 강도*		
공주 부여 청양	공주시	금강문화권	대전, 청양, 논산, 부여, 아산, 세종, 청주	- 저차 : 대전	△	- 부여(농림수산물)	- 공주시와 부여군은 백 제역사의 주 축도시들로 서 역사적 연계·협력 가능성이 매 우 큼
				- 중차 : 대전, 청양	△		
				- 고차 : 대전, 천안, 서울	○		
	부여군	금강문화권	대전, 논산, 공주	- 저차 : 논산	△	-	
				- 중차 : 논산	△		
				- 고차 : 대전, 서울	○		
	청양군	금강문화권	공주	- 저차 : 내부	-	- 부여(전산업·농림수산물· 음식료품)	
				- 중차 : 공주, 홍성, 예산	◎		
				- 고차 : 대전, 천안, 서울	○		

주 : 연계강도(◎ 강함, ○ 중간, △ 약함)



[그림 10]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안)

참고문헌

- 김정연·오명택 외 5인, 2013. 12,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지역간 연계·협력권 구성과 분야별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 이종상, 2013. 5. 27, “통근통행을 통해서 본 충남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내포광역도시권”,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광역도시권 구상」 전략과제 제11차 전문가 워크숍
- 임선빈, 2013. 4. 29, “충남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적 고찰-동질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특성과 연계·협력과제」 전략과제 제8차 전문가 워크숍
- 지역발전위원회, 2013. 1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

부록 : 금강유역의 역사와 문화

임 선 빈(한국학중앙연구원)

1. 금강의 명칭과 수계
 - 1) 다양한 명칭
 - 2) 발원지와 수계(유역)
2. 금강유역의 역사
 - 1) 고대의 금강유역
 - 2) 고려시대의 금강유역
 - 3) 조선시대의 금강유역
 - 4) 근·현대의 금강유역
 - 5) 금강유역의 역사인물
3. 금강유역의 문화유적
 - 1) 선사유적
 - 2) 고분
 - 3) 불교유적
 - 4) 유교유적
 - 5) 성터유적
 - 6) 도요지
4. 금강유역의 민속과 구비문학
 - 1) 마을신앙
 - 2) 생산풍습과 세시
 - 3) 구비문학
5. 금강문화권의 설정과 특징

1. 금강의 명칭과 수계

1) 다양한 명칭

-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면, 금강(錦江)의 명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 (15세기 전반기) : 대천(大川)은 웅진(熊津)이다. 그 근원이 전라도(全羅道)에서 나와 양산(楊山) 서쪽을 지나 영동현(永同縣)에 들어가고, 이산현(利山縣)에 이르러 적등진(赤登津)이 되고, 옥천(沃川)에 이르러 화인진(化仁津)이 되며, 회덕(懷德)에 이르러 이원진(利遠津)이 되고, 연기(燕岐)에 이르러 또 큰 냇가 있어, 청주(淸州)의 서쪽 지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아래가 웅진(熊津)이 【사전(祀典)에 있다.】 되고, 공주(公州)에서 금강(錦江)이 되며, 부여(扶餘)에서 고성진(古省津)이 되고, 임천(林川)에서도 고다진(古多津)이 되며, 진포(鎭浦)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 『신증동국여지승람』 (15세기 말) : 수분현(水分峴, 장수현) → 남천(南川, 장수현) → 호천(狐川, 장수현) → 소이진(召爾津, 금산) → 지대진(只大津, 금산) → 범나루(虎津, 옥천) → 적등진(赤登津, 옥천) → 車灘, 옥천) → 화인진(化仁津, 옥천) → 말흘탄(末訖灘, 회인현) → 형각진(荊角津, 문의현) → 금강(공주) → 곰나루(熊津, 공주) → 백마강(白馬江, 부여) → 고성진(古城津, 임천·석성) → 바다(海, 서천)
- 『연려실기술』 (18세기 말) : 공주의 금강은 근원이 옥천(沃川)의 적등진(赤登津)에서 나오고, 적등진은 근원이 덕유산 서북에서 나오니, 장수·진안의 여러 냇물이 합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용담(龍潭) 달계천(達溪川)이 되고, 무주에 이르러 대덕산(大德山)·적상산(赤裳山) 냇물과 합해서 금산 경계에 이르러 소이진(召爾津)·지화진(只火津)이 된다. 다시 이 물은 옥천에 이르러 호진(虎津)이 되고, 또 북쪽으로 흘러 적등진이 된다. 상주 중모현(中牟縣) 물은 황간(黃澗)·영동(永同)을 지나고, 속리산 물은 보은·청산(靑山)에서 합류해서 북쪽으로 화인진(化仁津)이 되고, 회인(懷仁)을 지나서 말흘탄(末訖灘)이 되며, 서쪽으로 흘러 문의에 이르러서 이원진(利遠津)이 되는데, 이것을 또 형각진(荊角津)이라고도 한다. 이 물은 또 서쪽으로 동진(東津)과 합하고, 연

기(燕岐)·동진·진천(鎭川)·청안(淸安)의 여러 냇물이 합류해서 청주 작천(鵲川)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목천·전의의 여러 냇물과 합해서 동진이 된다. 다시 공주 북쪽에 이르러 금강이 되고 남으로 꺾어져 웅진과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된다. 또 은진(恩津)에 이르러 강경포(江景浦)가 되고, 또 서쪽으로 꺾어져 석성의 고다진(古多津)·임천(林川)의 남당포(南堂浦)·한산(韓山)의 상지포(上之浦)·서천의 진포(鎭浦)가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데, 임천에서 서천포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포라고 한다.(『연려실기술』 별집 권16, 지리전고 총지리.)

2) 발원지와 수계(유역)

- 금강의 발원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동국여지승람』에는 속리산·덕유산 중모현으로 되어 있고, 『택리지』에는 덕유산과 마이산, 『성호사설』에는 덕유산, 『대동지지』에는 마이산 동봉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새한글사전』에는 전북 장수군, 『한국지명총람』에는 신무산 수빈이 고개로 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빈이 마을 뒷산인 신무산의 뜯봉샘이다.
- 뜯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상류의 진안·금산·옥천을 거쳐 중류의 대전·공주·부여·논산, 하류의 서천·익산·군산으로 흘러간다. 금강은 서해로 유입되기 전까지 많은 지류가 합류하는데, 대표적인 지류로는 무주·진안·금산 지역에서 남대천·정자천·봉황천이, 공주에서는 유구천이, 부여·논산에서는 금천·논산천과 합류하여 하류로 흘러간다.
- 덕유산과 마이산 사이의 동서 여러 읍의 내와 골짜기 물은 합쳐져서 금강의 물 근원이 되는데 이를 적등강이라 한다(『택리지』). 금강의 상류인 적등강의 동쪽에는 장수 무주 황간 영동 청산 보은이 있고, 강 서쪽에는 진안 용담 금산 옥천 등의 여러 고을이 있다. 구한말의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황간은 영동에 청산은 옥천에 용담은 진안에 각각 통합되어 지금은 겨우 면소재지로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 미호천은 예전에 작천(鵲川)이라 불렀다. 작천의 상류에는 진천 고을, 왼쪽으로 청안 청주 문의의 세 고을, 오른쪽으로는 목천 전의 연기의 세 고을이 각각 차례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목천은 천원군에 청안

은 괴산군에 문의는 청원군에 전의는 연기군에 각각 면으로 편입되어 작천의 유역에는 진천 청원 연기의 3개군과 청주시만 남아 있다.

- 『택리지』에서는 금강은 동에서 공주의 북에 이르러 다시 남쪽으로 휘어져 웅진 백마강 강경강이 되고 다시 서쪽으로 구부러져서 진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강의 흐름은 한층 느려지지만 수량은 많아져서 예전에는 큰 돛배가 떠 바다와 강을 잇는 물길이 열렸다. 물자와 인마, 문물이 이 물길을 따라 번다하게 왕래하였다.
- 금강은 풍부한 유량과 넓은 강폭으로 예부터 서해와 내륙을 잇는 수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내륙에 위치한 강경은 옛날 유명한 하항이었으며, 호남선의 개통과 육로교통의 발달이 있기 전까지 청주·대전 인근의 부강까지 소금배가 오가며 서해의 풍성한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2. 금강유역의 역사

1) 고대의 금강유역

- 금강유역은 국가의 형성·발전이 비교적 빨리 진행된 지역의 하나이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른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마한 소국들이 형성·발전했던 것이다. 때문에 4세기 중엽까지 금강유역의 역사는 바로 마한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금강유역의 마한세력은 한강유역에서 출발한 백제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백제가 금강유역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이 지역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백제가 금강유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세력을 등장시키면서 국가발전의 기틀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금강유역이 한국고대사에서 마한시대에 이어 다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백제는 공주에서 부여로의 천도, 익산 경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추

구하였지만, 결국 금강유역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 신라와 당나라의 양국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옛 백제지역과 그 주민을 신라의 통치질서에 포함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백제 유민들은 백제의 부흥에 대해 남달리 치열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신라 하대에 이르러 금강유역은 중요세력의 발상지로서 뿐만 아니라, 세력 각축장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새로이 점하게 되었다. 금강유역은 초기에 견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왕건의 세력강화와 함께 그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인 고려에서 또 다른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고려시대의 금강유역

- 금강유역은 고려 건국초부터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었다. 태봉왕 궁예의 중요한 세력기반이었던 청주, 공주의 호족세력이 왕건의 고려 건국에 반대하여 왕권에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저항은 실패로 끝나고, 이로 인하여 이 지역 출신들은 고려시대 내내 중앙의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극히 적어 정치적 차별을 받기도 했다.
- 그러나 금강유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를 끼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역대 왕들도 이 지역의 통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 성종 2년 12목의 설치로 시작된 고려지방제도에서 금강유역은 전라도와 양광도에 속하였고, 금강수로 교통의 요지인 청주, 공주등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중심이 되었다. 특히 금강하구에 위치한 진성창은 전국 제일의 곡창인 전라도 세곡이 집결되는 고려왕조 조운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하였다.
- 고려말 금강유역은 풍부한 물산 때문에 왜구들의 주된 침략목표가 되었다. 500여척에 이르는 왜구의 대선단과 최대의 해전을 벌인 곳이 바로 금강하구의 진포였다. 이 해전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가 처음 사용되어 왜선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거두었고 이후 왜구의 침입이 점차 감소하였다.

3) 조선시대의 금강유역

-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금강유역의 계룡산 신도내(신도안)는 한양과 더불어 새왕조의 강력한 수도 후보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세국가의 재정은 백성에게서 걷어 들이는 현물조세, 주로 곡물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각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곡을 중앙으로 수송하는 것이 국가의 유지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읍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했다. 신도내가 새왕조의 강력한 도성 후보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금강의 수로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 조선왕조에서 금강유역은 대부분 충청도와 전라도의 관할하에 소속되었는데 금강을 따라 충청도의 행정, 군사체제의 지휘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붕괴되었던 조운제도도 복구되어 금강은 조선왕조 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라도 세곡을 중앙으로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 조선후기 금강유역의 경제적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지역은 이앙법을 비롯한 신농법이 널리 보급되어 농업선진지역이 되었다. 또한 농법발달에 따른 생산력과 수로교통을 바탕으로 상품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하여 조선후기 자본주의의 발생에 있어 가장 앞선 지역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발달은 지배층의 수탈도 가중시키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경제적 변동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갈등도 컸다. 따라서 금강유역에서는 조선왕조의 봉건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반봉건 농민항쟁도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4) 근·현대의 금강유역

- 성리학을 신봉하던 조선후기의 일반현상 속에서 특히 그러한 전통기반이 강했던 충청지역에 천주교의 전파와 이양선의 잦은 출몰이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전통성리학과 그 분위기에 물씬 젖어 있던 금강유역의 천주교전파, 농민반란 등에 대한 대응양상은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초기 보수적인 대응으로 특징지워진다.

- 한말 서양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양상은 크게 척사운동과 개화운동, 갑오농민전쟁으로 나뉘는데, 금강유역의 경우 이들 세 갈래의 움직임 중에서 성리학적 전통분위기로 말미암아 척사계열의 움직임이 지배적인 조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은 한말의 의병항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을미의병은 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발발하고 11월 단발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된 의병항쟁이다. 그런데 그 효시가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10월 문석봉등이 회덕 등지에서 봉기한 회덕의병이었고, 가장 격렬했던 의병항쟁이 바로 홍주의병이었다.
- 농민군의 봉기가 전남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금강유역의 충청지역에서도 문의 옥천 회덕 진잠 청산 보은 옥천 등지에서 동학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한편 10월 16일 논산에 집결한 농민군은 공주로 북상하여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나, 6~7일에 걸친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마침내는 노성 연산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이후 동학농민군은 연전연패하여 계속적인 후퇴와 참살을 당하였다.
- 8도제가 23부제로, 다시 13도제로 바뀌면서 공주와 같이 조선조에 강인한 전통기반을 지녔던 지역들이 점차 축소되고 그 중심지는 새롭게 성장하는 대전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기존의 문화적 기반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1932년 충청도청의 대전 이전으로 금강유역의 거점이었던 공주와 이에 연결된 금강유역의 문화적 전통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대전은 철도교통의 중심이 되었고, 1905년 경부선 개설, 1914년 호남선 개통, 1931년 장항선의 개통은 공주와 같은 금강유역의 최대거점을 점차 대전과 군산, 장항 등지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 일제강점기 금강유역의 농민운동은 대도시의 근교에서 조직성을 보이고, 시기적으로는 대전 부근이 1922년 23년에 집중되어 앞서는 형편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농민들의 운동과 이 시기에 활발해진 청년야학운동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는데, 일제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적색운동으로 분리하여 철저하게 검색하게 하였다. 한편 노동운동은 보다 강성의 조직력과 투쟁양상을 보였는데, 1926년 공주 인쇄공들의 파업을 필두로 하여 대전의 군시제사공장파업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는 일제말기로 가면서는 중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5) 금강유역의 역사인물

- 백제의 인물은 주로 수도였던 공주·부여와 관련이 있다. 백제의 왕으로는 웅진백제기의 문주왕·삼근왕·동성왕·무령왕, 사비백제기의 성왕·위덕왕·혜왕·법왕·무왕·의자왕이 있다. 이 가운데 동성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등이 주목된다.
-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은 백제 제24대 왕으로 금강 유역권을 지배기 반으로 한 신진세력 등용, 신라와의 혼인동맹, 중국 남제에 사신 파견, 궁궐의 중수와 수도 방어망 정비 등을 통해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초기의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키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였다. 비록 새로 부각한 신진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암살당했으나, 그는 무령왕·성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1971년에 발굴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령왕릉의 주인공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은 백제 제25대 왕으로 40세인 501년에 즉위하여 23년간 재위하다가 62세인 523년에 돌아갔다. 키는 8척이요,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관대하여 민심이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대내적으로 즉위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왕권의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의해 상실한 한강유역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백제가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제26대 성왕(聖王, 재위 523~554)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성이 있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북으로 고구려에 침탈당한 영토를 회복하는가 하면, 제2의 도약을 위해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대역사를 단행하였고, 국가의 통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백제가 명실상부한 국가체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찰 창건과 불경 번역, 불교의 교류에 앞장섰고, 이로써 백제가 나름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군주이기도 하다.
- <서동요>로 우리에게 친숙한 제30대 무왕(武王)은 600년부터 641년까지 42년간이란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무왕은 재위 기간 중 활발한 신라와의 전쟁 수행과 더불어 사비궁의

중수,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과 같은 대규모 역사(役事)를 단행할 정도로 전제왕권이 강화되었고, 대외적 팽창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무왕의 재위 시기는 사비시대 정치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시기였으며, 정치적 안정기였다.

- 의자왕(義慈王, 재위 641~660)은 태자 당시 부모를 효로써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여 ‘해동증자’로 불리었다. 이러한 평에 걸맞게 의자왕은 유교 정치사상을 강조하여 취약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의자왕은 즉위 초 국내를 시찰하고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사형수 외에는 모두 방면(放免)하여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신라 대야성 등 40여성을 회복하였으나, 나당군을 막지 못해 결국 항복하고 당에서 사망하였다. 의자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가 진행중이다.
- 백제의 충절인으로는 계백과 성충·흥수 등이 있다. 계백(階伯, ?~660)은 백제의 장군으로 신라군에 맞서 결사대 5천명과 함께 황산벌에서 전사하였다. 부여 팔총리가 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논산 충곡리에 그의 묘소가 있어서 최근 성역화 작업과 함께 백제군사박물관이 개관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부여의 삼충사·의열사와 논산의 충곡서원에 그의 위패가 배향되었다. 성충(成忠, ?~656)과 흥수(興首)는 의자왕의 실정에 직간을 하다가 옥사하거나 귀양갔다.
- 신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제 유민은 신라인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 9세기초 금강 일대를 관할한 웅천주 도독 김헌창(金憲昌, ?~822)은 백제인의 정서를 이용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가 웅천주 도독으로 부임한 지 채 1년도 안되는 짧은 동안에 국가 형식을 취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면에는 웅천주가 백제의 옛 영토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백제 유민의 정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세운 장안국은 한때 신라의 9주 가운데 4주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의 전 지역과 경상도의 서부와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
- 백제 부흥의 염원은 신라의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해지던 9세기 말 견훤의 후백제로 계승되었다. 견훤(甄萱, 867~935, 재위 892~935)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호도 후백제라 칭하면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해 감으로써, 한 때 후삼국 가운데 가장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930년의 고창(안동) 전투에서 패배한 후 수세로 물리면서, 내부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났다. 결국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었던 견훤이 고려로 탈출하

고, 신검이 황산벌에서 왕건에게 패하면서 백제부흥의 꿈은 무산되었다.

- 금강유역에서는 일찍부터 유교문화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오면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다량 수입하여,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보령) 출신의 백이정(1260-1340)이다.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1298-1351)·이색(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 가문으로 이들은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다. 여말에 내포와 금강하류의 접이치대에서 선진 성리학이 발달한 것이다.
- 석탄 이존오(1341-1371)는 말년에 공주 석탄(현재의 부여 저석리)에 은거했으며, 야은 길재(1353-1419)는 전라도 금주(지금의 금산)와 인연이 있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박팽년(1417-1456, 연기·회덕)도 금강유역과 연고가 있으며, 우리의 역사에서 한동안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 있었던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 절재 김종서(1383-1453)는 공주 출신이었다. 이와 같이 여말 선조의 호서 유형 가운데 이곡·이색부자, 이존오, 길재, 박팽년, 김종서 등이 금강유역의 인물이다.
- 16세기에는 계룡산의 처사 박증(1461-1517, 노성), 후기 사림과 김정(1486-1520, 보은·회덕),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1466-1524, 한산), 김안로를 탄핵했던 송인수(1487-1547, 청주·회덕), 만년을 계룡산 자락에서 보낸 서기(1523-1591, 공주), 유성과 연고가 있는 박순 등이 금강유역의 대표적 인물이다.
- 17세기에 이르면, 금강유역 호서명현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후기 유학의 흐름은 크게 기호학과와 영남학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류는 기호학파였다.¹⁰⁾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과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지역을 가리키는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지역, 그 중에서도 금강유

10) 조선후기 기호학파에 대해서는 황익동의 『한국의 유학사상』(1995, 서광사)과 『울곡학의 선구와 후예』(1999, 예문서원) 참조.

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과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1548-1631, 연산)과 그의 제자 김집(1574-1656, 연산), 송시열(1607-1689, 회덕), 송준길(1606-1672, 회덕), 이유태(1548-1631, 금산·공주), 김정여(1596-1653, 회덕), 그리고 김집 문하의 유계(1607-1664, 임천·금산), 윤선거(1610-1669, 노성) 등이 금강유역의 인물이다. 김장생·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섯 사람(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을 충청오현이라 했는데, 이들이 모두 금강유역의 인물이다.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은 문묘에 종사되었다.

- 17세기 山林의 경우에도 금강유역의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¹¹⁾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1604-1672, 유성), 윤순거(1596-1668, 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1601-1672, 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1629-1714, 노성), 권상하(1641-1721, 청풍), 이기홍(연풍) 등으로 금강유역의 인물이 13명에 달한다.
- 이외에도 신희(1566-1628, 회덕), 윤문거(1606-1672, 노성), 오달제(1609-1637, 홍산), 김익겸(1614-1636, 연산), 윤희(1617-1680, 공주우거), 송상민(1626-1679, 회덕), 송규렴(1630-1709, 회덕), 강세구(1632-1703, 회덕), 김만중(1637-1692, 연산), 권이진(1668-1734, 유성), 이중환(1690-1752, 공주), 송능상(1710-1758), 송환기(?-1807), 송치규(1759-1838), 송명흠(1705-1768), 임헌회(1811-1876, 연기), 김항(1826-1898, 연산) 등이 금강유역과 연고를 갖는 대표적인 선비들이다.

3. 금강유역의 문화유적

- 금강 유역 곳곳에는 구석기시대부터 각 시대의 중요 유적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인 공주 석장리, 우리나라 최

11) 김세봉, 『17세기 호서산림세력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5.

대의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인 부여 송국리유적, 백제의 왕릉인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무령왕릉과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굴 등 숏한 화제를 뿌린 유적들이 있다.

1) 선사유적

- 금강은 다른 큰 강들에 비해 강물이 여러 굽이를 이루며 흐르므로, 많은 샅강이 있어 강언저리에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얕은 구릉지대가 형성되었다.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금강유역의 선사유적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에 구석기시대 이후 신석기·청동기시대까지 계속 사람이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 구석기시대의 유적을 크게 양달유적과 동굴유적으로 나누어 볼 때, 금강유역에서는 두가지가 모두 찾아진다. 양달유적으로는 공주 석장리유적과 청원 샘골유적이,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 공주 마암리 유적이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석기 전통을 지닌 펜석기가 지표의 여러 곳에서 찾아져 금강의 언저리에는 많은 구석기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석장리유적은 일제침략기에 형성된 식민사관의 부정·극복과 우리 역사의 상흔을 끌어올리게 한 중요한 학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구석기학 연구가 자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다른 유적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기구석기부터 후기구석기까지의 문화가 층위를 이루어 찾아진 것을 비롯하여 집터도 발굴되었다.
- 청원 두루봉 동굴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자료 이외에 많은 짐승뼈, 석기, 뼈연모 그리고 당시 사회를 이끌어 냈던 주인공의 사람 뼈가 찾아져 구석기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이 없고 강 옆의 지표에서 빗살무늬토기만 찾아질 뿐이다. 금강가에서 찾아진 빗살무늬토기를 보면, 서울 암사동유적에서 보이는 서해안 전통과 부산 동삼동유적에서 나타나는 남해안 전통을 같이 가지고 있어 당시의 활발하였던 문화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금강유역이 양지역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 금정리유적은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많이 나오는 겹입술·새끼무늬·모래질의 빗금무늬와 굽은선 무늬 등의 빗살무늬토기가 나와 주목되며, 앞으로 자세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지면 금강유역의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유적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금강의 언저리에서 많이 찾아지고 있는 고인돌 그리고 돌널무덤·독무덤·널무덤 등이 있다.
- 송국리유적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살림을 꾸렸던 집터는 물론 돌널무덤·돌무덤 등이 찾아져 금강유역의 청동기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집터의 평면구조가 서로 다른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점,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도끼의 거푸집 등 청동기에 관계되는 유물이 찾아진 점, 불에 탄 쌀 등은 금강은 물론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옥천 안터유적을 비롯한 여러곳의 고인돌유적을 통하여서는 축조과정이나 제의에 관한 문제 등 금강유역의 독특한 고인돌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금강유역의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실시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면 뚜렷한 금강유역의 선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밝혀질 것이다.

2) 고분

- 고분은 문화재적 혹은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무덤을 의미한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하여 문명을 영위한 이후 영혼불멸에 대한 관념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조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고분은 당시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나 사상, 사회상 혹은 물질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인류의 과거사 복원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금강은 한반도의 중부권에 자리하여 내륙의 넓은 지역을 아우르면서 서해로 흐르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대동맥이다. 이로서 강의 연안에는 일찍부터 인문적 환경의 조영이 있었고 더불어 인문환경의 영위에 따라 많은 고분이 조영되었다. 다만 고분은 다른 지상유적과는 달리 매장유적으로서 존재한다는 특성 때문에 조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총체적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금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고분은 상류지역인 청주의 신학동에서 하류의 옥구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100여 지역에 분포하고 고분수는 수천기에 이른다. 다만 고분의 분포가 상류에서 하류까지 모든 지역에 비교적 광범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분의 고고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현재 확인된 자료는 대체로 중류지역인 공주, 논산 및 하류의 부여, 익산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분포상은 고대 백제라는 국가의 도읍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 금강유역의 고분은 선사시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세월속에서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조영되어 있다. 특히 백제고분은 대부분의 형식이 망라되어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 고분은 축조재료에 따라 보면 토광묘, 석축묘, 옹관묘의 형태가 모두 발견되고 있는데 다만 옹관묘나 토광묘는 석축묘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인다. 석축묘는 수혈식, 횡혈식의 유형이 총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백제의 석축묘 중 기단식, 적석총의 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공주와 부여지역 및 익산지역의 백제영역의 중심권에는 특수유형에 속하는 무령왕릉과 같은 전축묘나 화장묘가 조영되기도 하였다.
- 금강유역의 고분이 대체로 백제시대의 고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백제가 금강유역을 지배영역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금강이라는 천연의 환경에 의지하여 국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흥 및 문화의 만개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 그러나 금강유역에는 백제고분 외에도 백제가 이 지역에 문화의 역량을 과감히 시키기 전에 이미 토착의 재지집단들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착묘제가 광범하게 자리하고 있다. 나아가 백제 멸망 후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삶을 영위한 사람들에 의해 조영된 각종의 고분도 잔재되어 있다. 이러한 고

분의 잔존현황은 금강유역에서의 인문적 환경의 조영이 선사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고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토착의 재지문화 내용도 결코 손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성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고분이 대변한다.

3) 불교유적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 불교유적 유물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유물로는 오직 청원군 비중리의 석조 불상군이 있을 뿐이다.
- 475년 백제가 웅진(공주)에 수도를 정한후 웅진시대의 확실한 불교유적, 유물은 드물다. 공주지역의 삼국시대 불교유적 유물로는 대통사지, 금학동사지, 수원사지, 능암사출토 금동여래입상, 의당출토 금동보살입상, 정치리사지출토 석등연화대석 등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성왕 4년(526년)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대통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대가 내려가는 유구나 유물이다. 대통사지출토의 석조도 공주시대의 유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풍만한 석조의 외형과 기단부를 작게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는 전체 구성, 그리고 간석에 조각된 전형적인 백제식 단판연화문 등에서 백제미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
- 금학동사지는 위치로 보아 백제시대의 사지로 추정되지만 유구의 교란이 심하며, 이곳 출토의 광배는 백제양식을 따른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석불상들도 모두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수원사지는 삼국유사에 미륵신앙과 관련된 기록이 보여서 주목되지만, 발굴결과 뚜렷한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능암사출토 금동여래입상과 의당출토 금동보살입상은 모두 7세기 전반의 상들이다.
- 538년에 백제는 금강을 더 남하하여 사비(부여)로 옮겼는데, 이 부여지역에 많은 백제시대의 사지, 유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비시대에 불교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지로는 부소산서록폐사지, 구아리사지, 구교리사지, 정림사지, 가탐리사지, 군수리사지, 규암리사지, 신리사지, 왕흥사지 등이 있으며, 이들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

들을 통한 백제 불교미술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 부여지역의 사지를 살펴보면, 우선 군수리사지, 정림사지, 동남리사지 등 평지가람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람배치는 일탑일금당식이 일반적이고, 탑은 목탑이었던 경우가 많으며 석탑으로는 정림사오층석탑이 남아있다. 정림사오층석탑은 목탑의 구조를 돌로 재현한 것으로 기단부가 단층기단으로 낮으며 옥개석은 길고 넓은 평판석으로 하고 이후 같은 부여지역인 한산사지의 고려시대 삼층석탑에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사지에서는 와전류가 가장 풍부히 출토되는데, 연관이 풍만하면서도 윤택한 단판연화문 와당이나 규암면 외리출토의 문양전 등은 대표적인 예들이다.
- 불상의 경우는 작은 규모의 금동불상과 소조불상, 납석제불상 등은 남아 있는데, 양식적으로 군수리사지출토 불상들이나 정림사지출토납석제삼존불, 그리고 신리출토 불상군, 금성산 남록 폐사지출토 납석제불상편, 가탑리 사지출토 금동불입상 등은 모두 6세기로 올라가는 상들이며, 규암면출토 금동보살입상과 현북리사지 금동보살입상 등은 7세기 전반의 상이다. 특히 납석제상이 많은 것이 주목되고 이 상들은 금동불과 더불어 백제 불상양식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부여의 사지들은 대부분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이 빈약한 것으로 보아, 백제 멸망과 더불어 폐사된 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정림사만이 고려 현종 19년에 대대적으로 중창되어서 거대한 석불상이 전한다.

(2) 통일신라시대

-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주의 서혈사지와 갑사, 연기군의 연화사와 서광암의 비상,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청원군 일대의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탑동 석탑,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그리고 옥천 용암사의 마애불입상, 영동의 영국사 등이 있다. 연화사와 서광암의 비상은 백제유민들에 의해 조성된 가장 이른 통일초의 것이고, 그외의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 하대의 것들이다.
- 청주 일원에 뛰어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많은데, 이는 청주가 통일신라시대 5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이었던 때문이다. 갑사와 영국사는 조각이 매우 훌륭

를한 통일신라시대의 부도와 석비 등 많은 유물이 전하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선종사찰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 불상들은 항마촉지인이거나 지권인을 취한 석조여래좌상이 많고, 대좌는 대부분 화려하게 장식된 3단의 팔각연화대좌이다. 서혈사지 출토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옥천 용암사의 마애불입상은 균형잡힌 불신에 양감이 풍부하고 선이 유려한 상으로 통일신라 전성기의 불상으로 생각된다. 석탑은 탑동의 오층석탑과 영국사의 삼층석탑이 있는데 모두 규모가 크다. 영국사의 탑에는 부조가 없는 것에 비해, 탑동 석탑의 초층탑신에는 사방불로 보이는 불좌상이 부조되어 있다.

(3) 고려시대

- 고려시대에는 불교유적 유물의 분포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주의 갑사, 부여의 정림사, 영동의 영국사 등이 전대의 전통을 계속 잇고 있는 사찰들이라고 한다면, 개태사를 중심으로 한 논산지역과 청주일원이 불교유적의 중심지로 새로 부각되고 있다.
- 연산의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국찰이다. 논산지역은 개태사 건립 이후 고려왕실에서 중요시 여겼던 지역으로 광종대에는 다시 관촉사가 이곳에 세워지며, 이들 절에는 모두 고려초의 기상을 과시하는 거대한 석불들이 조성되었다. 이 불상들은 이후 이 지역의 불상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같은 논산의 송불암과 덕평리, 대정운사지의 석불입상, 그리고 부여 대조사의 석조보살입상 등은 모두 양감이 풍부한 거불 계통의 불상들이다.
- 청주지역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호족과 지방정치의 중심지로서, 규모가 큰 사찰 외에도 지방적 성격이 강한 작은 규모의 절이 많이 건립되었다. 규모가 컸던 사찰로는 청주의 호족인 김예중 김희일 형제 양가의 발원에 의해 세워진 용두사와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홍덕사를 들 수 있다. 용두사에는 준평 3년(962년)명이 있는 철당간이 전하고, 홍덕사지에서는 통일신라양식을 따른 동종과 기축명(1209년으로 추정), 갑인명(1254년으로 추정)이 있는 금고가 출토되었다.

- 그 외에도 청원군의 계산리 오층석탑, 비하리 석불좌상, 양사동 석불군, 괴정리사지 석불입상, 그리고 청주시의 수도원지 석불군, 목암사 석불입상 등 많은 유물이 전하고 있다. 특히 불상은 석불좌상이 많고, 조각은 소략한 편이어서 지방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고려말에 세워져 조선시대에 번창한 절로는 논산의 쌍계사와 익산의 승림사가 있으나, 승림사의 지정 5년명 와당 외에는 고려시대의 유물로 전하는 것이 없다.

(4)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찰로는 공주 갑사, 논산의 쌍계사, 금산의 보석사, 청원군의 안심사, 옥천군의 가산사, 대전 고산사, 영동의 영국사, 익산의 승림사 등이 있다.
- 조선시대의 유물로 대표적인 것은 대웅전과 같은 건축물인데, 대부분 임란 후인 조선후기의 건물들이다. 갑사와 쌍계사의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가 큰 건물이며, 특히 쌍계사 대웅전의 문짝은 연꽃과 모란이 아름답게 조각된 꽃살문으로 유명하다. 청원 안심사와 익산 승림사에는 화려한 닻집이 남아 있다.
- 이들 건물에는 조선시대의 후불탱이 전하는 경우가 많다. 갑사 대웅전의 후불탱인 삼불회탱에는 옹정 8년(1730)의 조성기가 있고, 안심사 대웅전의 후불탱은 영산탱으로 순치 9년(1652년)의 목기가 있다. 영국사 대웅전에는 강희 48년(1709)의 영산탱과 건륭 37년(1772)의 삼장탱이 전한다.
- 법당의 주존불로 봉안된 불상에는 목불과 소조불이 많으며, 복장기가 발견되어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예도 여럿 있다. 옥천 용암사 대웅전의 불상은 목불로 복장에서 순치 8년(1651)에 개판된 다라니의 인쇄물이 나왔고, 가산사의 목불은 천계 4년(1624)에 조성된 아미타불이다. 익산 승림사 보광전의 목불에서는 만력 41년(1613) 겨울에 만들기 시작해서 다음해 봄에 완성하였다는 복장기가 나왔다. 이 불상들은 모두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한편 청주 용화사의 칠존석불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조각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 공예품으로는 만력 11년(1584년)명이 있는 갑사의 동종, 승림사의 청동은 입사향로 등이 있다.

<표 1> 금강유역의 시·군별 불교유적과 유물

시·군명	불교유적·유물
장수군	춘송리 오층석탑
진안군	천황사
금산군	중도리 석탑, 보석사, 대원정사 비로자나불좌상
영동군	영국사, 석은사 석조삼존불상
옥천군	용암사, 가산사, 현리사지 삼층석탑
대전시	유성출토 석조여래좌상, 석교동 마애불좌상, 고산사
진천군	용화사 석조보살입상, 연곡리사지, 용정리사지
청주시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탑동석탑, 용두사지, 흥덕사지, 대한불교수도원, 목암사 석불입상, 청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용화사
청원군	비중리사지, 산덕리출토 금동여래입상,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금생사지, 안심사, 계산리사지, 비하리출토 석조여래좌상, 양사동사지, 정하리사지, 한계리사지, 괴정리사지
연기군	연화사 석불상, 서광암 계유명삼존천불비상, 반곡리사지, 석연사 석조여래입상, 송용리 석조여래입상
공주시	대통사지, 수원사지, 능암사출토 금동여래입상, 서혈사지, 금학동사지, 영은사, 의당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갑사, 정치리사지, 신흥리사지
청양군	계봉사
부여군	부소산서록 폐사지, 구아리사지, 구교리사지, 정림사지, 금성산남록 폐사지, 가탑리사지, 동남리사지, 군수리사지, 조왕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외리사지, 규암면출토 금동보살입상, 신리출토 불상군, 왕흥사지, 청룡사, 현북리사지, 한산사지, 금강사지, 대조사
논산시	개태사, 관촉사, 쌍계사, 송불암 석조여래입상, 영은암 마애불,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대정운사지 석불입상, 범골 마애불, 탑정리 석탑
서천군	봉남리사지, 지현리사지 석탑
익산시	송림사, 은적사
옥구군	불지사

4) 유교유적

- 금강유역은 한강권 낙동강권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유교문화권이다. 16세기 중엽까지는 이 지방출신 사림이 기호학파의 일각을 형성하고 17세기 중엽에는 지역적으로 연산 회덕 청주 공주를 연결하는 선으로 호서유학의 중심권을 형성하였다. 학문 사상 뿐만 아니라 정치실세에서도 영남권과 경기권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것이 이 지방의 유교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 금강유역의 시·군별 유교유적

시·군명	향교	서원·사우·기타 유교유적
장수군	장수향교 (보물272호)	창계서원(1695), 압계사(1789), 도암사(1815), 용암사(1818), 월강사(1828), 화산사, 세덕사
진안군	용담향교, 진안향교	영계서원(1649), 삼천서원(1667), 충절사(1806), 구산서원(1828), 용계사(1860), 영산사(1862), 충효사, 쌍충사, 회덕전, 영모사, 영광사, 약산영당, 충열사, 주천사, 청덕사, 옥천사, 문성전, 숭모사, 화산서원(화천사)
무주군	무주향교	백산서원(1608), 죽계서원(1713), 주계서원(1725), 도산사(1813), 대덕사(1814), 죽림사(1827), 설천사(1860), 정씨원우(1865), 숭모사, 한천사, 설호사, 유천사, 가일사
금산군	금산향교, 진산향교	성곡서원(1613), 반계서원(1632), 표충사(1649), 산천재서원(1663), 종용사(칠백의충, 1663), 청풍사(1672), 유곡서원(1698), 석포재서원(17C후), 용강서원(1716), 금곡서원(충렬사, 1831), 구암사(1883), 대첩사(1886), 숭모사, 정충사, 황풍사, 정의사, 대산사, 귀봉사, 현덕사, 충열사, 숭절사, 문회당
영동군	영동향교, 황간향교	송계서원(1570), 초강서원(1611), 삼양서원(1675, 영남계), 봉암서원(1637), 송계서원(1664), 화암서원(1670), 삼양서원(숙종대), 호계서원(숙종대), 한천서원(1717), 풍천서원(정조), 한천서원, 자풍서원, 난계사, 관우사당, 세덕당, 노후당
옥천군	옥천향교, 청산향교	쌍봉서원(1571, 영남계), 창주서원(1608), 삼계서원(1621, 영남계), 덕봉서원(1701), 목담서원(1765), 후율당, 용문영당
보은군	보은향교, 회인향교	상현서원(1549), 금화서원, 후율사, 백봉사, 상현사, 후성당, 금화사, 추양사, 탁청사, 산양사, 익재공영당
대전시	회덕향교, 진잠향교	송현서원(1609), 정절서원(1684), 도산서원(1691), 용호서원(1697), 종회사(1697), 미호서원(문희사, 1718), 성전영당(1731), 돈파사(1781), 송절사(1856), 쌍청당, 봉소재, 송애당, 남간정사, 유희당, 거업재, 제월당, 사우당, 영귀대, 용호사, 진정재, 역천정사, 석남재 등
진천군	진천향교	백원서원(1597), 지산서원(1722, 소론), 정송강사우, 금성대군사우, 만리사, 노은영당, 사양영당
청주시	청주향교	신향서원(1570), 귀계서원(1613), 노봉서원(1615), 검암서원(1694), 화양서원(1696), 백록서원(1710), 표충사(1728), 모충사, 이동고사우
청원군	문의향교	노봉서원(1610), 백록서원(광해군), 송천서원(1695), 쌍천서원(1695, 영남계), 검담서원(1695), 덕천서원(1695), 기암서원(1699), 국계서원(1701), 태화서원(1701), 봉계서원(1702, 영남계), 송계서원(1702), 죽계서원, 검암서원(미상), 서계서원(1871), 운곡서원, 곡수서원, 목은영당, 목정영당, 구봉영당, 최영장군영당, 초계군묘, 송상현장군충렬사, 강감찬장군충현사, 이정사, 남양사, 고천사, 기산사, 강고사, 상의재, 수락영당, 하윤영당 등
연기군	연기향교, 전의향교	봉암서원(1651), 문목사(1690), 뇌암서원(1699), 충장사(1710), 기호서원(1710), 합호서원(1716), 덕성서원(1885),
공주시	공주향교	충현서원(1581), 덕천군사우(1654), 용문서원(1665), 표충사(1738), 충렬사(1828), 동학서원(1830, 동계사·삼은각·숙모전), 성봉서원, 윤전사우, 명탄서원(15C말?), 병암서원, 요당서원, 운산서원, 창강서원, 충표사, 삼의사, 고간원, 문회당, 남산영당, 화산영당, 조연사우, 월굴영당, 문성영당, 윤전사당, 대도사 등
부여군	부여향교, 석성향교, 임천향교, 홍산향교	의열사(1575), 청일서원(1621), 창강서원(1629), 칠산서원(1687), 봉호서원(1693, 소론), 창열서원(1717), 부산서원(1719), 낭산사(부여, 1736), 간곡서원(1740), 퇴수서원(1757), 남산서원(1770), 연호서원, 칠산서원, 삼충사, 동곡서원, 남산서원, 무풍군묘, 청일사, 왕의영당, 팔충사, 부풍사, 충덕사, 궁녀사, 도강영당, 정언옥영당, 동절사, 유태사묘
논산시	은진향교, 연산향교, 노성향교	죽림서원(1626), 돈암서원(1634), 노강서원(1675, 소론), 금곡서원(1687), 충곡서원(1692), 휴정서원(1699), 구산서원(1700, 소론), 봉곡서원(1712), 효암서원(1713), 궤리사(논산, 1716), 행림서원(1867), 모곡서원(?), 선충사(?)
서천군	한산향교, 서천향교, 비인향교	문헌서원(1594), 건암서원(1662), 청절사(1710), 화산사(1730), 흥산사(1823), 율리사(1850), 검산사(1884), 향현사(?)
익산시	익산향교, 여산향교, 함열향교, 용안향교	화암서원(1552), 화산서원(1657), 오강서원(1852) 단동사, 충열사, 담월사, 팔봉사, 덕천사, 두천사, 은천사, 현동사
옥구군	옥구향교, 임피향교	봉암서원(1664), 염의서원(한림사, 1685), 삼현사(옥구, 1764), 설림사, 문창서원, 옥산원, 현충단, 산양원, 설림사, 지동원

- 유교유적으로는 향교와 서원, 정려와 정자, 누각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문화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유교유적이다. 향교는 금강유역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조선시대 일읍일교의 원칙에 의해 고을마다 건립되었다. 이에 비해 서원·사우는 각 지방에 연고를 달리하는 성씨의 문중 또는 학파의 연원을 중심으로 설립, 운영되는 관계로 중심권과 주변지역의 차이가 있으며, 그 주도집단의 정치, 사회, 경제적 실세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전개양상에 편차가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 금강유역에서는 많은 명현이 배출되었으므로, 조선후기에 많은 서원과 사우가 세워졌다. 금강유역의 상류지역에 향교 12, 원사(서원·사우) 51, 중류지역에 향교 6, 원사 40, 하류지역에 향교 18, 원사 53으로 총 향교 36, 원사 144이다. 서원의 당색을 살펴보면 영남계 서원 5(쌍봉서원, 삼계서원, 삼양서원, 쌍천서원, 봉계서원), 소론계 3(노강서원, 봉호서원, 구산서원)이고 나머지는 노론계 서원이다. 금강유역의 영남계 서원은 상류의 옥천과 중류(미호천)의 청원으로 모두 현재의 충북에 해당한다. 금강 중·하류의 본류지역은 기호사림파의 서원이 지배적이었다.

5) 성터 유적

- 금강유역은 백제시대의 도읍이던 이유로 도성을 중심으로 하여 수 많은 성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금강 어구에는 진포(鎭浦)라 하여 장암에 옛부터 백제의 도성을 지키는 요충이 마련되었으며, 그 안쪽으로 강의 남북 연안을 따라 몇 겹의 방어시설이 마련되고, 군데군데 보다 큰 규모의 요새에는 축성을 하여 지키는 관방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는 웅진성과 사비도성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의 금강과 그 지류에 축성을 통한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금강유역으로 도읍을 정한 백제는 신라와의 사이에 그 상류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기를 무려 200여년 가까이 지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상류의 각 지류의 요충지에는 매우 조밀하게 축성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백제가 신라에 의하여 통합되던 시기에 이르러 정치의 중심부가 이동되었고, 신라의 왕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백제와의 국경지대에 있던 크고 작은 성들이 유지될 필요가 없어졌다. 이때에 이

르러 금강 하구는 대당 전투에 있어서 서해안을 지키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신라말 고대사회가 붕괴되고 중세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에 옛 삼국의 성들은 새로운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뒤 금강유역의 성들은 또 다시 개성과 변방을 이어주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이민족이 침입하는 경우 이들을 대항하기 쉬운 성들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사용되었고, 고려 말기 왜구가 침입하는 시기 또한 금강유역의 성들은 왜구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왕조에 이르러 금강 하구 지역에는 수군과 병선이 배치되었으며, 내륙을 지키기 위하여 웅진성을 쌍수산성으로 전환, 옛 백제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던 상당산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새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금강의 하류지역에 있는 많은 고을에 새로이 읍성이 축조되어 주민들의 총체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되었다.

<표 3> 금강유역의 지역별 성터 유적 분포

분포지역			성터수
대청호주변	옥천 서화천 유역		12
	대청호 동북안		5
	미호천 유역	조천, 아우내 유역	9
		백곡천, 보강천 유역	6
		무심천, 유등천 유역	6
	갑천, 유등천 유역		20
공주지역	(웅진성 외)		7
부여지역	금강 동북안		11
	금강 서북안		23
금강하구	금강 남안		6
	금강 북안		3

6) 도요지

- 금강유역 도자문화의 성격은 크게 백제시대 토기와 기와요지, 고려청자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요지, 분청사기 요지, 조선후기 지방백자 요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삼국시대 토기로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시대에 따라 제작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도자기의 생산이 계속되었다.
- 백제시대 토기는 백제 수도의 천도를 중심으로 한성시대의 토기, 웅진시대의 토기, 사비시대의 토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성시대의 토기인 진천지역 토기의 성격은 두들긴 무늬토기가 주류이지만 경질화된 민무늬토기가 함께 출

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마구조는 반지하식 가마와 지상타원형 가마의 두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4세기 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부여 정암리 기와가마는 진천지역 기와가마 구조와 비슷하다. 정암리 기와가마는 사비시대에 제작 활동했던 가마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곳 생산의 기와가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부여 인근의 사찰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금강유역에서는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백제토기 및 기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 고려시대 청자의 생산형태는 관주도적인 생산체제, 즉 관요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으로 밀집되는 특징을 보여 금강유역에서는 청자 전성기의 가마터는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고려왕조가 안정되기 이전과 고려왕조가 무너져 가던 정치적인 과도기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금강유역에서는 진안 성수면 도통리의 고려 초기 청자가마터가 주목되는데, 이곳에서는 햇무리굽 완 종류와 원통 M자형 갑발더미가 있다. 바탕흙은 백색에 가깝고 유약의 색조는 녹갈이나 황갈을 띠고 있어 고려초기 가마의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의 가마터는 그 지방 호족과의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금강유역에서 가장 특징을 보이는 것은 분청사기이다. 분청사기는 바탕흙, 찰감, 물이라는 기본요건만 갖추어지면 바로 가마를 열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에서는 점성의 흙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14세기 경 정치·사회의 혼란, 왜구의 침입, 그리고 사기와 목기를 쓰도록 한 정부방침으로 말미암아 강진의 관요가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기술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지방요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말기 청자의 성격으로부터 분청사기의 성격을 띠는 가마로 변모·발전하여 갔다.
- 분청사기는 발전과정에 따라 초기(1360년경~1420년경), 중기(1420년경~1480년경), 후기(1480년경~1540년경), 말기(1540년경~1600년경)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매병 형태의 변화, 연당초 무늬의 전승, 새로운 인화기법 발생이 특징적이다. 중기는 분청사기의 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분청사기의 특질이 뚜렷해지며 그릇의 질이 향상되면서 색이 밝아지고 유약은 투명하여 고려청자를 연상케 하고, 인화기법이 뚜렷해진다. 후기는 상감·인화기법은 쇠퇴하며 반면에 귀얄기법과 담금분장 기법이 성행하고 지역 특색이 뚜렷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주 학봉리의 철화분청사기이다. 말기는 분청사기의

소멸기로서 백자에 흡수·소멸되어 그 자취는 없어지는 시기이다.

- 금강유역에서는 14세기 이후부터 16세기까지 분청사기의 제작이 이루어져 분청사기의 발생으로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 볼수 있다. 초기에 해당하는 가마로는 대전 성북동 청자가마터, 청양 천장리 가마터, 공주 중흥리 가마터를 꼽을 수 있다. 중기에 속하는 가마로는 공주 학봉리·온천리·가산리, 연기 달전리·송정리·신대리·기룡리·쌍류리·청라리, 청원 심중리, 옥천 사정리, 부여 장벌리, 청양 장곡리 등이 이에 속한다.
- 금강유역에서는 중기에 해당하는 가마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주 학봉리 철화분청 가마터는 해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유분방한 무늬에서 꾸밈이 없는 천진난만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등 한국도자사상 가장 독자적인 도자기 문화를 남긴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처럼 공주·연기 일대에서 특히 분청사기가 성했던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바탕흙을 구할 수 있었고, 분청사기를 사용하는 수요층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는 전국적으로 백자 생산이 보편화 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안정과 백자 사용의 저변화를 의미했으니 금강유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강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자가마들은 경기도 광주와 관요의 영향을 받아 문자를 새기는 방법, 굽각는 형식, 기형 등에서 일부 공통점을 보이지만 반면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금강유역에서 조사된 백자가마터의 특징은 문양에서는 대부분 간략한 초문이 주류를 이루며, 기형에서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기벽이 매우 두터워지는 특징이 있다.

4. 금강유역의 민속과 구비문학

1) 마을신앙

- 금강유역의 마을공동체 신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개 상당신과 하당

신에 대한 신앙과 그 제의로 구성된다. 상당신은 마을 뒷산의 조용하고 그윽한 곳에 모신 산신이 되며, 하당신은 마을 입구에 모여져 있는 장승, 짐대(숫대), 선돌, 탑(돌무더기), 둥구나무 등을 말한다.

- 금강유역의 마을공동체 신앙은 이른바 당제형식의 의례로 주로 구성되며, 당굿 형식의 의례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곧 유교식 제례의 마을공동체 의례가 보편적이며, 무당이 참여하는 당굿이나 별신굿 유형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충남 부여 은산의 별신굿이 하나의 특례로서 나타날 뿐이고, 간혹 금강 하구나 장시가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만 하당제에 무당이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 금강유역에는 산신당을 비롯한 장승, 짐대, 탑, 선돌, 둥구나무(일정시간에는 신목으로 쓰이는) 등이 모두 있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앙대상물이 거의 전형적으로 이 지역에도 보이고 있다. 곧 유교식 제례를 기초로 하여 치러지는 산신제와 거리제가 기본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신앙을 구성하는 갖가지 신앙대상물이 모두 존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금강유역에 분포하는 마을 중 일부는 내수면 어업으로 많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생산활동이 어촌의 풍어제에 비견되는 어떠한 신앙의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곧 강촌에서의 풍어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 장수 지역으로부터 신탄진 동편의 대청댐에 이르는 금강상류지역은 다음과 같은 마을공동체 신앙의 특성을 보인다. 곧 제일(祭日)이 대부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집중되어 있고, 상당에는 신목을 당산으로 위하는 경향이 강하고, 하당에는 돌무더기 탑인 조탑이 우세하다. 산제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경우 호환의 피해를 두려워하여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탑은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이라 하여 두분을 위한다. 특히 조탑제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산신제를 모신 다음에 조탑제를 엄격한 유교식 제사로 모시는 정적 제의이고, 다른 하나는 무당을 중심으로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팔죽제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미신타파 사업으로 마을 신앙이 많이 쇠퇴 소멸하였다.
- 대전으로부터 강경에 이르는 금강 중류지역은 상류지역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무진장의 일부 마을에서 처럼 앞당산, 뒷당산 등 몇 개의 당산을 한 마을에 모시는 경향이 없고, 신목을 주된 당산으로 여기는 신앙도 없어진

다. 또한 팔죽제나 도깨비제라 하여 부녀자들이 중심이 된 의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마을 뒷산에 산신을 모시고, 마을입구에 몇몇 거리신을 모시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일도 점차 음력 정월 대보름이 더욱 강세를 보이고, 탐과 장승이 하당신으로 모셔지나, 탐은 상류지역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원, 보은 지역에서는 제의 명칭이나 신앙대상물을 통칭하여 수살제, 수살이, 수살막이 하는 낱말이 많이 사용된다. 해방나던 해만 해도 하당신으로 장승 옆에 늘상 짐대(숫대)가 함께 했으나 급격히 소멸하였다. 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마짐시루라는 제의 요소가 강하다.

- 강경으로부터 장항에 이르는 지역, 곧 부여, 익산, 서천, 옥구는 금강 상·중류 지방과는 마을의 주신이 막연한 산신의 개념에서 다소 벗어나 구체적인 인격을 지닌 신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때로는 서낭신이라고도 통칭되며, 또한 목조인형에 형질을 입혀 구체적인 신상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기설화를 지닌 당집이 많다. 금강 하구 지역은 서해안으로 나가는 길목이라 어촌의 마을신앙과 거의 성격이 유사하다. 그리고 때로는 하당제에서 무당의 참여와 함께 성대히 베풀어진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탐과 장승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가 미비한 탓도 있겠지만, 장승문화권에서는 주변 지역임은 분명한 것 같다. 또 하나의 특성은 금강 상·중류에서는 우세하지 않던 기세배놀이나 기뻛기 놀이가 다소 널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2) 생선평습과 세시

- 금강유역의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김을 매는 조직을 두레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큰두레와 작은 두레라는 명칭이 나타나는데, 큰두레는 일반적 의미에서 두레를 의미하며, 소두레는 사실상 품앗이에 가까운 것이다. 두레가 분화되면서 풍물이 사라진 결과 강제적 성격의 두레가 약화되었다. 이에 약 10여명의 공동협력단위로 존속하게 된 이행기의 두레를 소두레라고 부른다. 따라서 금강유역에서는 두레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의 논매기 작업에서 행해지는 마을공동노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금강유역의 세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류인 익산 군산 지역에서 禾竿의 하나인 유지지 세우기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지지는 이월 초하루에 내린다. 이월달에는 농사의 준비와 파종을 준비하는 의례적 풍속이 발달되어 있다. 단오때에는 수리떡을 해 먹거나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행사가 어느 지역

이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칠석과 백중에 즈음해서는 두레의 마무리와 결산이 이루어져 농민들이 잠시 하루를 놀면서 즐긴다. 금강 본류 지역은 대체로 칠석놀이가 많이 보인다.

- 194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의 향토오락에서 금강유역의 놀이를 찾아보면 약 80여 종류의 놀이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놀이는 금강 유역에 걸쳐 큰 편차 없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미호천 상류에는 거북놀이나 소놀이, 금강 하류에는 기세배가 지역 특성으로 나타난다.

3) 구비문학

- 금강유역의 위치에 따라 구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세계관 및 역사의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자연관을 보면, 상류 사람들이 산과 바위 등 자연물 자체와 삶을 직접 교감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중류 사람들이 자연물과 삶 사이에 문화적 구조물 및 신령한 존재가 끼어들거나 또는 자연물이 사람들의 삶에 종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비해, 하류사람들은 자연물의 대상이 바다로 한정되고 바다의 용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육지의 사람 세상이 태평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삶과 직접적으로 부딪뜨리는 자연의 조건에 따라 자연관도 다르지만 생업과 세계관도 다르다.
- 생업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인 농사꾼 이야기를 제외하면 상류에는 나무꾼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고, 중류에는 나무꾼과 머슴 및 새우젓 장사, 하류에는 소금장사가 등장하는 특성을 지녔다. 나무꾼이 상류의 산촌 사람들의 민중성을 대표한다면, 소금장사는 하류의 해촌 사람들의 민중성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류의 산촌 사람들은 산신령의 계시로 산삼이나 약초를 캐서 부모의 병을 고치고 성취하는데 반해, 중류의 야촌 사람들은 단지에 돈을 모아 저축을 하거나 화수분과 같은 신기한 보물그릇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성취를 이룬다. 그런데 하류의 해촌 사람들은 자라나 잉어와 같은 물고기류를 살려주고 용궁의 신이한 보물을 얻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훌륭한 성취를 이룬다.
- 금강유역에서 전승되는 설화가 특히 다른 고장의 설화와 구별되는 개성을 지닌 것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어느 고장의 경우보다 백제시대라는 말이 과거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빈번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금

강유역이 백제의 주요 무대였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제 관련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것이며, 또한 패배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두드러져 있다. 이것은 백제가 패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금강유역 설화들은 이러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유역별로 몇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상류에서는 적군이 늘 신라군사이다. 신라군사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 백제의 도읍지와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신라군의 침입을 빈번하게 받았던 까닭에 그러한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 중류에서는 적군이 다양하다. 신라군과 당군이 제각기 문제되기도 하고 나당연합군이 출현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야기되지 않는 고구려군이라든가 때로는 일본군까지 출현한다. 금강중류는 부여과 공주 등 백제의 옛 도읍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백제 중심에 속한다. 자연히 상하류에는 문제되지 않는 고구려군의 침입에 따른 웅전설화가 생성전승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나당연합군이다. 금강은 백제의 중심인 동시에 서해를 건너온 당나라 수군의 경로이기도 하며 백제의 북쪽 방어선이기도 한 까닭이다.
- 하류에서는 백제사에 얽힌 이야기가 흔하지 않다. 백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디다. 백제 패망 당시 서해를 건너온 당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통과지역일 뿐 왕도가 아니므로 중류처럼 국운을 건 전투는 없었다. 따라서 전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나 장군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될 리 없다. 다만 소정방의 전승담이 백제의 패망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백제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소정방의 탁월한 재치와 승전담만 두드러져 있다.
- 백제와 관련한 역사의식의 차이에 따라, 아래자 설화에 속하는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두고서도 상중하류 주민들의 이야기는 차별성을 지닌다. 상류에서는 이 이야기가 황간 견씨 시조설화로 전승되는데 비해, 중류에서는 백제 왕의 신이한 탄생설화로 이야기되고, 하류에서는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의 탄생설화로 이야기된다. 상류의 황간 견씨 이야기는 한 집안의 성씨 시조신화이자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백제라는 시대와 백제왕이라는 공간을 함께 뛰어넘고 있다. 하류의 경우도 백제왕의 이야기에서 뛰어 넘어 후백제의 시조신화로 전승된다. 다만 중류에서만 백제시대의 이야기로 또 백제왕의 탄생설화로 이야기되면서 백제의 시간적 공간적 좌표 속에 머물러 있

는 셈이다. 상하류 사람들은 백제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금강 유역 사람들이 한결같이 백제시대와 영역을 무대로 이야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니지만 지역적 편차에 따라 그 의식도 다양한 층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강유역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 논농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모찌는 노래에서부터 모내기 노래, 논매기 노래, 노적 노래, 벼바심 노래에 이르기까지 논농사와 관련된 노래들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모내기 노래가 풍부하게 전승되며, 모찌기 노래와 논매기 노래의 경우에도 ‘얼렁덜 상사디야’하는 후렴이 일치되게 나타난다. 이것은 모내기든 논매기든 한결같이 선후창으로 노래가 불리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영남지역에서는 모내기 노래가 교환창이므로 후렴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우창이 우세하고, 앞소리를 메기는 소리꾼의 전문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산유화가라고 하는 독특한 민요양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5. 금강문화권의 설정과 특징

- 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의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면서 부터이다. 원래 1970년대까지는 학계나 행정분야에서 백제권, 신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양쪽에서 모두 빠진 충청북도에서 중원문화권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화권’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이다. 당초 중원문화권에는 충북만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신라문화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중원문화권의 정비사업에 백제유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이후 백제(왕도)문화권이 따로 분리 설정되었다.
-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이 처음에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진행되었으나, 10년 단위가 너무 길다고 하여 1988년부터 5년 단위로 바뀌었다. 또한 이때에 기존의 3개 문화권에 가야문화권과 강화(문화권)이 추가되어 5개 문화권이 등장한다.(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강화문화권 등) 2003년에는 5개 문화권에 고구려·고려문화권, 영산강·다도해문화권이 추가되면서 7개 문화권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문화권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다분히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작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었다.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학계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권 명칭이 일관된 원칙을 지니지도 못하고 있다.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고구려·고려문화권처럼 역사상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원문화권, 강화문화권, 영산강·다도해문화권처럼 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각 문화권이 지칭하는 지역범주도 名實相符하다고는 할 수 없다.

- 7개 문화권과는 별도의 경북(북부)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이 있는데, 이는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과도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관광권이나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문화권이라는 표현이 더더욱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소도시에도 문화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니, 안동문화권, 익산문화권 등이 그 예다.
- 문화권 설정 방식에는 귀납적(경험적) 방식과 연역적(이론적) 방식이 있다. 해당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요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화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의치 못하면 우선 의미 있는 분석지표를 통한 연역적 방식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점에서 문화권이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교통로와 밀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운에 토대를 둔 ‘문화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전근대시기 육로와 수로는 지역간 교류를 담당한 강력한 통로였다. 수·육로망이 조밀한 곳에서는 지역간 교류가 활발하여 등질의 문화속성을 보유하게 되고, 반대로 교통망이 희박한 지역에서는 외부와의 교류빈도가 낮아 이질적이고 고립적인 지역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문화권 형성의 요소로 수륙교통망은 중요한 것이다. 하천유역권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는 문화권의 경계를 이룬다. 한강문화권, 대동강문화권, 금강문화권, 낙동강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 금강유역의 지역범주는 금강상류지역으로 전라북도의 장수, 진안, 무주와 충청남도의 금산, 충청북도의 영동, 옥천, 보은, 중류지역으로 대전과 충북의 청주, 청원, 충남의 연기, 공주, 부여, 논산(일부), 하류지역으로 충남의 논산(강경지역), 논산, 서천과 전북의 익산, 옥구로 나눌 수 있다.
- 금강문화권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 기호 선비문화의 본고장이었다.